FEB 12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45 1982년 2 월11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hursday, February11,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노래·춤 으로 활짝핀 대보름

도 개 걸 윷 놀이대회

노년회, 8만달러예산통과

정월 대보름맞이 윷놀이대회가 지난 6일 200여 노인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벌어졌다.

이날 한인회관에서 벌어진 노인회 주최(회장 조영호)「대보름맞이윷놀이」에는 5명씩 짝을 이룬 20여조가 참가, 안기호, 정일억, 김유옥, 최홍남, 심옥려씨조가 영예의 1등을 차지, 쌀 25파운드짜리 1부대씩 과 트로피를 탔다.

지난달 노인회 총회에서 82년도 예산안등을 조영호 신임회장단에 일임, 이날 노인회는 윷놀이에 앞서 임시총회를 열어 84,510달러에 달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윷놀이장에는 200여 노인이 꽉 들어차 열기를 보였다.

조영호 회장은 "100명도 겨운 한인회 총회와 비교해 보라"면서 토론토 교민사회 노년층의 단결력을은근히 비치었다.

윷놀이대회 중반에 곁들인「장수상」시상식에서는 금년 84세의 김회준할아버지와 82세 함필용 할아버지가 상장과 부상을 수상했다.

김회준옹은 토론토에서 사업하고 있는 장남 김성규씨등 2남2녀가 있고, 손자 손녀 10여명을 거느리고 있으며 부인 최복순 할머니도 이날 윷놀이대회에서 김양례, 이필재, 박채균, 조갑출 할머니의 여성들로만 팀을 이뤄 5위에 입상하기도 했다.

김옹은 10일 장수 1등상 부상(카셋·테이프용 손가방)을 노년회에 반납하면서"매년 같은사람이 같은 상을 타는것은 타당치 못하다. 상을 다른사람에게양보하고싶다"고 말했다.

또하나의 장수상을 수상한 함필용옹은 토론토에거주하는 2남 함태호씨등 5남1녀와 손자 손녀 14명을 두고 있다.

대회를 더욱 빛나게 한 것은 어깨를 덩실덩실 노래를 간드러지게 불러 준 함양자, 노경욱 할머니의 창과 안기호 할아버지의고 전춤이었다.

이 대회를 위해 의사 황대연씨의 700달러등 3천여 달러와 쌀, 송편등 각종기증품이 더욱 잔치를 즐겁게 했다.

◇윷놀이 입상자
1등 : 안기호외 4명
2등 : 문재우외 4명
3등 : 김무배외 4명
4등 : 심중균외 4명
5등 : 김양례외 4명

◇한인회관 강당 바닥에 윷판을 펴고「윷나와라」소리치며 노년회원들이 윷놀이를 즐기고 있다. 공중에 윷가락 2개가 치솟았다.

다저스10월중 방한 한국 프로팀과 경기

(서울 10일＝연합) 81년 월드시리즈의 패권을 차지한 LA 다저스팀이 금년 10월 한국을 방문, 새로 창단된한국프로야구팀들과 친선경기를 갖는다.

다저스의 방한은 한미외교 백주년을 맞아 한국프로야구창설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방한통보를 받고 한국프로야구협회는 대대적 행사와 시합스케쥴을 구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은다저스의 사장 피터·오멜리씨가 오는 3월27일 한국프로야구 전야제 참석차 내한할 때 확정된다.

미국프로야구팀으로는이번 다저스의 방한이 56년도 센트루이스·카디널즈와 58년도 디트로이트에 이어 세번째가 된다.

도시인에게 중과세 지역 인구 분산책

(서울10일＝연합)한국인간정착문제연구소는 10일 대도시의 인구를 줄이는방안으로 지역별 세재를 도입할것을 건의했다.

이 연구소는 정부가 서울등 인구과잉 집중지역의 기업이나 주민들에 다른지역보다 많은 주민세, 등록세, 재산세, 회사세및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인구를 분산시킬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또 주민세의경우 서울 은 타도시의3배, 부산시는 2배를 징수할 것과두 도시의 소득세는 현재의두배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 536～1692
R 245～3539
454 BLOOR ST.W. TORONTO.ONT.

제7 회 미인대회에 첫시도

「디너와 댄스」형식

토론토한인회의 캐라반운영위원회(위원장이대환)는 지난 12일저녁 뉴·서울식당에서 미스코리아 대회 첫 준비모임을 열고, 대회규모 스케줄등 윤곽을 짰다.

이날 모임에는 박인순한인회장을 비롯, 이대환, 이장성, 장기철, 김효, 이석현, 신영식씨가 참석, 미인대회에 관해 여러각도로 검토숙의끝에 아래 사항들을결정했다.

예년과 같이10여명의 미녀들이 경합할것으로 예상되는 제7회 대회는 오는 4월24일 하오 6시 30분～새벽1시 다운타운 Holiday Inn(토론토시청뒤) 2층 볼룸에서 열리는 대회는 예년과 달리 칵테일·디너및 댄싱파티도 곁들인 다양한 스케줄로 벌어진다.

연예인 초청쇼·경품추첨등은 재래와 같다.

하오6시30분～7시30분 : 칵테일
7시30분～8시30분 : 디너
8시30분～10시 : 미인선발대회
10시～10시30분 : 연예인쇼
10시30분～11시 : 심사발표및 시상
11시～1시 : 댄스파티

연예인 공연은 수영복·야회복·한복소 간간에도있으며, 한국인 유명가수등 2,3명을 초청할 예정이다.

이날 만찬대겸 입장료는 $30이며, 미인후보 신청마감은 4월10일 하오 5시이다.

무대장치·조명등 구체적 계획은 이장성·장기철씨가 담당, 입장권·프로그램·포스터 문안등은 김효씨가맡아 오는 18일(목), 하오7시 캐라반운영위원회 모임에 제출, 그날 예산등 미인대회의 모든 계획을 확정짓기로 했다.

◇ 80년도 캐나다 미스코리아 "진" 허윤정양.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가정의 벗
한국일보

의사들 1일파업 돌입

치료비 31% 인상투쟁

온타리오주 윈저및 오타와지역 의사들은 치료비인상 운동의 일환으로 9일하오 일제히 휴진, 오타와에서열린 소위"연구회합" 에 참석했다.

온타리오 의료협회(OMA)가 마련한 오타와 회합에서"의사들은 협회의 요금인상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고 메레이· 맥카담 부회장은 말했다.

이같은 의사들의 반나절 휴진으로 오타와 병원들은 80건의 소형수술을 비롯, 대부분의 수술을 연기내지 취소했다.

의사들은 의료비의31.2%인상을 요구, 이날부터온타리오 전역에서 교대로파업하는 전술을 쓰고있다.

온타리오 의료보험(OHIP)을 관장하는 온타리오보건성은 의사에대한 의료보험금 10%인상안을 제의했었다.

의사들은 OHIP에 가입된 환자들을 치료하면 OHIP으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는다. 일부 의사들은 OHIP제도에서 탈퇴, 환자로부터 독자적인 치료비를 징수한다.

해밀톤및 런던지역 의사들은 10일, 토론토지역 의사들은 17일 하루를 완전 휴진한다.

외미도입비 $10억8천5백만

(서울10일＝연합)한국은 81년도에 외국산 쌀 도입에 10억8천5백만달러를 소모, 80년보다 2.3배나더 많은 외화를 쌀 도입에 충당했다.

상공부는 10일 작년도 소모한 외화중 쌀 도입비가 원유도입비 다음가는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81년도에 한국이 원유도입비로 쓴 돈은 63억7천1백만달러였다.

NHL 올스타전 웨일즈승리

마이크보시 MVP 와 스포츠카

(랜도비－메릴랜드)뉴욕아일랜더스의 마이크·보시는 하키올스타 게임을 앞두고 약간 흥분했었다고되뇌였다.

16,000달러상당의 스포츠카를 탄 NHL올스타게임 최우수선수(MVP)마이크·보시는 두골을 기록, 캠벨조 올스타를 4 : 2로 누르고 제34회 NHL올스타전에 그의팀 웨일즈조가 승리하는데 결정적 수훈을 세웠다.

9일밤 미국수도 워싱톤근교 캐피탈 센터에서열린 NHL올스타전은 동부팀의 집합 웨일즈조와 서부팀인 캠벨조로 나뉘어 NHL최고수준의 경기를 전행, 올스타게임사상 2번째로많은 2만의 관중들을 매혹시켰다.

레이건 미대통령이 시합전날 올스타초청 백악관만찬회에서 텍사스주와 워싱톤 캐피탈즈에서 2명의 최우수 신인선수를 줄테니까 바꾸자는 웨인·그레츠키는 캠벨조로 뛰어 한골을 기록했다. 토론토의 릭·바이브도 1회전 초반에 선제골을 올려 기염을 토했다.

이번 34회 올스타게임에 출전한 선수들은 스포츠기자들이 선정했으며, 양쪽조에 각각 22명의 선수들이 뛰었다.

웨일즈조는 뉴욕·아일랜더, 보스톤, 몬트리얼등 경험많고 실력있는 선수들이 총집합, 시합전부터 에드몬톤 미네소타팀 선수들을주축으로 이루어진 캠벨조를 누르리라 예상 했었다.

◇캠벨조에 속한 오일러스의 마크·메시에가 퍽을 가지고 힘차게 대쉬하고 바로 뒤에서 레인저스의 배리·백이저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뒤에는 몬트리얼의 레리·로빈슨.

강 찬 영
변 호 사
537－3171
～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제7회 캐나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제6회 캐나다미스코리아 선발대회 80년도를 수놓은 정상미녀들
＝왼쪽부터 안주영(매너)·김진명(미)·허윤정(진)·손주라(선)·고보경(인기)양＝

때 : 1982년4월24일(토) 하오6시30분
곳 : 다운타운 HOLIDAY INN (토론토시청뒤)
신청마감 : 4월10일 하오5시
접 수 처 : 토론토 한국일보사(1025 DUPONT ST. TOR. ONT. M6H 1Z7)
연락전화 : (416) 533－2361～4
진행과정 : 하오 6 : 30～7 : 30 — 칵테일
: 〃 7 : 30～8 : 30 — 디너(만찬)
: 〃 8 : 30～10 : 00 — 미인대회
: 〃 10 : 00～10 : 30 — 연예인 쇼
: 〃 10 : 30～11 : 00 — 심사발표및 시상
: 〃 11 : 00～1 : 00 — 댄스파티
입 장 료 : $30.00

미녀들의 출전 환영!
캐나다 전역의 교포미녀들의 다수 출전을 바랍니다.
입상미녀들은 토론토에서 실시되는복합문화 축제 캐라반 행사에 호스트로참가하며,
최고미녀「진」은 모국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선」은 캐라반 미녀선발대회에 출전할 영광이 주어집니다.

주최 : 토론토지구한인회
후원 : 한 국 일 보 사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88서울올림픽에 탁구·테니스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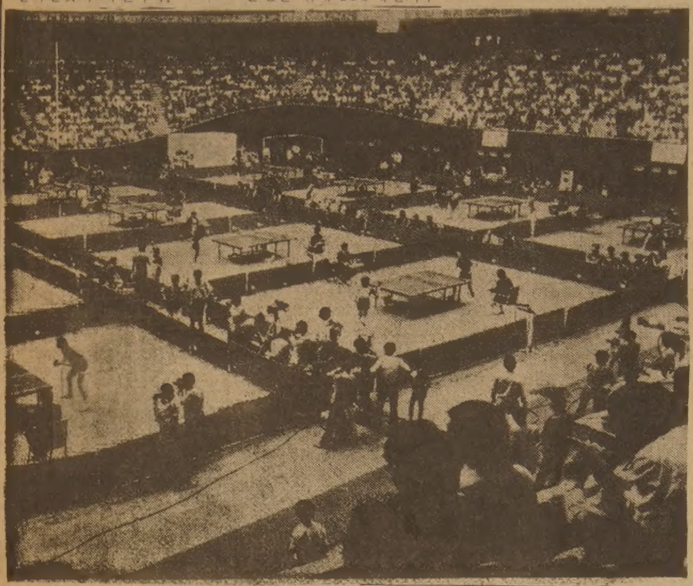
태권도는 시범종목, 23종목 확정

[LA지사 =변홍진 기자] 88년 서울올림픽에서 탁구 테니스를 포함한 총23개 종목이 거행되고 태권도는 시범종목으로 실시케 됐다.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LA근교 패사디나 헌팅톤·셰라톤 호텔에서 열린 IOC집행위원회는 서울올림픽의 정식종목으로 탁구와 테니스를 추가, 올림픽사상 가장많은 23개종목을 채택키로 결정했다. 앞서 바덴바덴IOC총회는 두종목을 올림픽프로그램에 넣기로 결의했었다. 탁구는 사상처음으로, 테니스는 64년만에 다시올림픽에 등장케됐다. 태권도는 시범경기로만 실시 된다.

태권도의 정식종목 채택여부는 오는 5월 로마 IOC 총회때 재론될 수도 있으나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5일 집행위원회를 끝내고 『서울올림픽 종목채택문제는 이번 회의로 완결지었다』고 밝혀 시범경기로만 실시될것이 확실하다.

사마란치위원장은 이날 IOC집행위와 국제경기연맹 연석회의를 마치고 서울올림픽 경기종목에 대해 이와 같이 밝히면서 IOC는 서울올림픽에 대비하여 한국인 국제심판·판정관·심리관등 기술요원 양성및 훈련을 위해 IOC재단기구인 솔리다리티에서 기금을 일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IOC잔·루이·뮤레 공보담당관은 사마란치위원장이 오는 4월7일 기요가와IOC부위원장등 일행 3명과 함께 3일간 한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오륜에 처음채택된 탁구 : IOC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탁구경기가 88년 서울올림픽에서 선보이게됐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오픈국제탁구대회전경.

IOC회의 서울서 개최

사마린치 위원장과 일문일답

다음은 IOC집행위와 국제경기연맹 연석회의를 마친 사마란치위원장과 나눈 1문1답이다.

—이번회의에서는 서울올림픽에 관해 무슨 문제를 논의했는가?

▲이번 회의에서는 서울올림픽의 경기종목, 시범경기, 지원문제등을 논의했다.

—서울올림픽의 경기종목은 무엇이 채택되었는가?

▲84년 LA올림픽 21개 종목에 탁구와 테니스 두 종목이 추가돼 총23개종목으로 올림픽사상 최대규모의 경기를 갖게됐다. 태권도는 시범경기로 결정됐다. 5월25일 로마회의에서 재론될지 모르나 종목문제는 이번으로 끝난것으로 안다.

—IOC가 서울올림픽을 지원하는 방안은 어떤것이 있는지.

▲대회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심판 판정관 심리관의 책임이 크다. 한국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경기연맹의 협력을 얻어야 하고 요원훈련을 위해 IOC솔리다리티 기금에서 일부보조키로 했다.

—서울올림픽전에 IOC 관계 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가.

▲LA올림픽이 끝나면 IOC는 85년부터 서울에서 집행위, 국제경기연맹 회의, 스포츠기자회의, 의학협회 회의등 각종 회의를 잇달아 열 계획이다.

올림픽 운동위 커미셔너

김운용씨 선임

(LA 지사 변홍진기자)= 김운용세계태권도연맹총재는 5일 폐막된 IOC집행위원회에서 새로 구성된 올림픽운동위원회 커미셔너(위원)로 선임됐다.

국제경기연맹 집행위원이기도한 김총재는 9인으로 구성된 올림픽운동위원회에서 유일한 동양인이다.

김총재는 피선직후『서울올림픽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게돼 기쁘다』고 말하고『태권도의 서울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은 6년이 남아 있으므로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머스·켈터 국제경기연맹회장(스위스)은『김위원은 세계스포츠계에 탁월한 지도력을가진 인물』이라고 말하고『오는 10월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귀훈 신부 신앙강좌

서울교구 소속 피정(묵상회)지도등, 특별 강론사 박귀훈 신부(68)는 미주지역 한인계 성당 순회강연중 지난 7일(일) 토론토한인천주교회 주일미사에「신자의 자세」주제로 강론했고, 이어 8일(월)~10일(水) 3일간 쎄인·폴 성당에서 하오8~10시 "현대를 사는 신자의 마음가짐"과 "신앙성장과 사명감" "평신사도의 길"등 내용으로 연속신앙강연을 실시, 많은 감화를 주었다.

서울 가톨릭대학 신학부출신으로 혜화동·세종로·미아리·세검정·성북동교회등의 주임신부를 역임, 사목활동을 하는 한편 지성인 교리지도, 묵상회 지도등에 공적이 크다.

작년 정년퇴직후도 계속 신자지도에 힘쓰고있는 박신부는 이 번 미주순방 강연에서는 LA, 워싱턴, 필라델피아, 버팔로를 거쳐 토론토에 왔다.

10일 연속강연을끝낸 박신부는 11일 시카고로 향발, 강연행각을 계속한다.

현재 토론토대교구 소속 신학생으로 사제(신부) 서품을 준비하고 있는 이인주(버나드) 부제는 박신부의 조카이며 금년말 안으로 신부로 서품될 것이다.

◇드물게 보는 폭설에 제설차량 운영자들은 즐거운 비명. 그러나 부삽으로 눈을 치워야하는 소시민들은 감기가 걸리는등 눈소동이 계속됐다. 다음주부터 다시 눈이 온다는 비보(?)다.

계속된 폭설에 토론토시 울상

제설비 사상최고, 8일현재 $360만 들어

유난히도 추운날씨와 폭설로 올해 토론토시당국은 곤경에 빠져 있다.

기상대는 금주도 계속폭풍을 동반한 폭설을 예보, 이미 제설작업에 360만 달러를 지출한 시당국의 재정상태를 더욱 압박하고있다.

토론토시의 머레이·브라운닝 도로국장은 8일 "금년도 제설작업비로 이미작년보다 200만달러나 더 지출됐다"고 말했다.

기상대의 폭설 주의보를 들은 스카보로시장 거스·해리스도 "금년은 제설 문제때문에 시민들의 불평이 끊이지 않는다. 행정관리생활 30년동안 눈때문에 금년처럼 속썩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들의 편의를 위해 시내 이스트·욕 지구에서는 노인들이 사는 집앞 제설작업을 해줄10살~19살사이의 청소년 자원대를 모집한다. 시당국은 이들에게 50¢의 수고비를준다. 눈을 치우려는 노인들이나 이 봉사대에 지원하려는 청소년들은 461-9451(EX 85)로 전화하면된다.

노스·욕지구에서도 노인들이나 신체부자유자를 위해 시에서 운영하는 제설차가 눈으로 그들의 드라이브 웨이(현관에서 차도까지의 길)를 막을때 마다 이것을 치울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게 7달러를 보조한다.

한국전재발시 즉각출동

레이건, 국방예산에 반영

(워싱턴 7일=연합)레이건 미대통령은 83년 회계년도 국방예상의 가장 중요한 목표들의 하나는 한국이나 다른 중요지역에서 전쟁발발시 전투부대나 지원부대를 신속히 이동시킬 수 있는 미군사수송력의 증강이라고 발표했다.

국회에서 예산안 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레이건대통령은 현재의 미군사수송력으로는 유럽, 한국이나 동남아시아, 페르시아만지역에서 군사침략에 효과적으로 반격할만큼 신속하게전투부대나 전투 지원부대를 수송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레이건은 이러한 취약점을 제거하는 것이 전쟁등 위기발생후 처음 30일동안의 미군사력 개선을 위한 중요한 첫단계라고 말했다.

83년도 미국방예산은 44억달러로서 이 예산에는 개선된 C-5화물 수송기단의 우선적 획득과 90년대까지 군대와 장비를 배로 공수할 수 있는 KC-10A 전차대원및 화물수송기의 추가구입, 그리고 주력전투부대 전개에 필요한 시간단축을 위해 중장비전투부대를 신속히 우송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4척의 추가해속 병참선의 개조와 장비와 보급품을 적재하고 동남아시아에 주둔하는 보급함대의 설립이 포함되어있다.

레이건은 지난해 8개월동안의 미전술병력및 목표를 엄밀히 평가한 결과, 소련과의 상대적 군사불균형이 80년대 중반에 가장 악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프랭크·칼루씨 미국방차관은 미국은 태평양함대를 증강, 날로 커지는 이지역 소련해군력을 효과있게 견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평양지역에서의 소련해군력에 대한 미국의 대응조처에 관한 질문의 답변으로 칼루씨는 현재 미국은 소련보다 해군력이열세에 있다고 시인하며 그러나 1990년에 완결이 예상되는 증강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칼루씨에 의하면 미국의 이같은 계획은 14개전투단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는 14개 전투단중 어느것이 전개되리라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TTC위조표 사건

이씨에 벌금 $5천

TTC위조표사건에 연루입건됐던 이정용씨가 재판결과 5천달러 벌금형을 받았다.

이씨는 8일 토론토지방법원에서 윌리암·근저스판사의 주재로 열린 마지막공판에서 유죄를 인정, 3년간 집행유예와 5천달러 벌금에 처해졌다.

변호사 투비씨는 "이씨는 이번 일로 사생활 자체가 무너졌으며, 한때 상점 3개를 소유했던 재산을 모두 잃었을뿐 아니라 2만 5천달러의 빚을 졌다" 면서 "토론토 한인사회의 신망과 명성을 잃고 한때 자살도 기도했다.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마지막 변론을 했다.

이씨는 현재 그의 형제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일하고 있다.

이씨를 기소한 검사 피터 그리피스는 이씨는 80년 12월과 81년 1월에 걸쳐 수많은 컨비년스 스토어 주인과 결탁, 성인용위조 TTC티켓을 정가보다 5%~25% 싸게 팔아왔다고 기소장에서 밝혔다. 그당시 TTC티켓을 파는 가게들은 티켓 판매수입의 1%의 코미션을 받아왔다.

이씨가 위조TTC 티켓을 공급하던 81년1월, TTC티켓 인쇄담당관들은 평소와같이 스폿첵을 하다 다량의 위조티켓이 나도는 것을 확인, TTC당국과 메트로·토론토 사기전담반에 신고했다.

사건의 단서를 찾고 있던 경찰은 마침내 욕웃X세인트 클레어에 있는 트윈스·버라이어티에서티켓판돈을 수금하던 이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이씨의 차 트렁크에서 싯가 9,600달러 상당 19,200장의 티켓이 플래스틱가방 속에 든 것을 발견, 압수했다.

이 사건이 터지자 한국으로 잠적한 2명의 주범도 1년전 한국에서 입건, 기소돼 그곳에서 2년 징역형을 받은바 있다.

일본항공기 도꾜만 추락

24 명사망 146명 부상

(도꾜)호텔화재로 32명이 죽은사고가 난지 하루뒤 같은 도꾜에서 또 비행기 추락사고가 발생, 탑승객 174명중 적어도 24명이 숨지고 150명이 다쳤다.

9일아침 174명의 승객을 태우고 도꾜를 떠나 후꾸오까로 향하려던 일본항공(JAL)소속 DC-8는 활주로를 벗어난 직후 도꾜 앞바다에 빠졌다.

사고직후 재빨리 구명정과 헬리콥터를 동원, 구조작업을 벌였으나 무릎이겨우 잠길 정도로 도꾜만의 수심이 얕아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것으로 보인다.

기장인 일본인 세이지·고다기리등 3명의 조종사와 5명의 여승무원은 모두 구조됐으나 부상이심해 아직 사고의 원인을 밝힐 만큼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일부 승객들의 목격담에 따르면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난 직후 균형을 잃고 도꾜만으로 뻗쳐있는 신호등을 들이 받고 바다속으로 처박혔다.

일부 사람들은 도꾜만에 많이 서식하는 물새 한 마리가 기체 엔진에 부딪쳐 비행기의 균형을 잃게 하지 않았나고 추측했다.

비행기사고는 도꾜와 후꾸오까등 남부일본도시들을 왕래하는 일본국내선으로 승객명단중 외국이름은 없다고 항공사 대변인은말했다.

최근 일본항공의 사고는 77년 9월 폭풍우속에서33명의 인명을 손실한 구알라 룸프르에서의 참사였다.

지금까지 기록된 최대의 비행기 참사는 카나리섬에에서 일어난 582명의 생명을 앗아간 77년3월 팬암소속 보잉747과 KLM소속747비행기 충돌사고였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조성관 목사 취임 고신장로교회

토론토고신장로교회(148 Thornridge Dr.)는 최근 담임목사를 새로 맞았다.

진주 삼일교회에서 시무하던 조성관 목사(45)는대한장로교, 고려교단(총회장 : 최일영 목사)이 파견한 캐나다 선교사 자격으로지난 1월20일 이 곳에 도착, 목회를 맞고 있다.

동교회는 78년 1월 고 박상순 목사가 설립, 시무하다가 80년2월 박목사가 타계하자 그동안 문기종, 최사철 목사가 임시목사로 교회를 돌봤다.

조목사는 부산중, 부산상고, 고려신학대학, 대학원을 거쳐 74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

목회를 하며 고려신학대학 강사로 출강하기도 한 조목사는 부인과 슬하에 3자녀가 있다.

◇유혈이 낭자한 승객들이 간신히 구명정에 올라있다. 일본항공 소속 DC-8이 나리타공항 이륙직후 도꾜만에 처박혀 최소한 24명이 숨지고 77명이 중상을 입었다.

성 명 서

카나다 한인총연합회는 신중한 토의를 거쳐 남북통일 문제는 온겨레의 숙원과 운명에 관한 문제라고 인정하고, 비록 회원중에는 이러한 성명서채택은 본회활동(목적)의 범위를 넘는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여 회의 근저를 이루고 있는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않을까하는 우려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의견도 없지않았으나, 회원다수의 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한다.

1)전두환대통령이 발표한 1.22의 남북한통일방법은 해외교포를 포함하는 전체 겨레와의 협의와 자유의사를 전제로하는 진일보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아 우리의 깊은 관심과 지지를 표명한다. 전대통령은 차제에 해외의 평화통일 자문위원의 실질적인 역할을 높이는데 깊은관심을 돌릴것을 호소한다.

2)남북통일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할 민족적 최대과업이다. 북한당국에 대한 전대통령의 계속적이고, 융통성있는 적극적인 통일방안 제시는 통일촉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세라고 보아 우리는 높이 평가한다.

3)금번 전대통령의 통일방안제시로 남북간 통일방안의 거리는 단축되었다고 본다. 남북한 쌍방중 일방이 원하는 통일방식만을 고집하는 과거의 정치적 대립에서 오는 민족 자해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하루속히 전겨레의 절실한 염원을 받아드려 민족통일국가를 형성하는데 비약적인 타협을 성취할 것을 호소한다.

4)우리는 남북통일에 있어서 방법논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다. 그러나 방법논은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방법논이 오래동안 "구설수"로만 남아 있을때에 겨레의 실망은 크지않을 수 없다. 남북쌍방은 이점에서 한민족의 결단과 지혜를 모우는데 더 이상 지연이 없도록 우리의 뜻을 전한다.　1982. 2. 5

캐나다 한인총연합회

성령교회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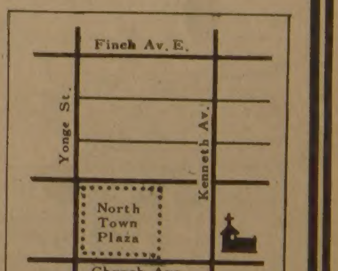
★내가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예레미아3장15절)★

성신의 지시하심에 따라김관선목사님을 성령교회영적 지도자로 담임하시게 된것을 알립니다.

정기집회

주일 예배 : 매주 일요일 오후2시

* 성경 공부 : 매주 금요일 오후9시
* 새벽기도회 :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전7시
* 성경공부및 새벽기도회는 3451 Nadine Cres, Mississauga에서함 으로 가까이 계시는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전화 275-4650)



교회위치 379 Kenneth Ave. Willowdale

성령교회는 말씀의 교회, 그리스도 신부교회, 사도와 선지자의 초석위에 선 교회로 현실에 이룩하여 성신의 감동으로 은혜와 율법을완성 할려는 교회입니다.

자동차구입 성향이 바뀌고있다

새자동차의 치솟는 가격과 유지비 상승으로 인해

새 자동차의 값과 유지비가 상승한데다가 시장에 등장하는 다른 새로운 상품들에 돈을 써야 하므로 많은 미국사람들이 자동차 구입 습관을 바꾸고 있다.

미국 사람들은 새 차를 구입한후 2~3년 사용하다가 다시 새차와 트레이드하던 과거의 성향에서 차체는 비록 볼품이 없지만 되도록 오랫동안 중고차를 계속 사용하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자동차회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수 있는데 1981년도에 또 한차례 최악의 판매부진을 기록한 자동차회사들은 이러한 자동차구입 성향 변화가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단지 전반적인 경제침체와 높은 이자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여름부터 다시 새차 판매가 활기를 보일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이 잘못될 경우 자동차회사들이 심각한 문제에 빠질수가 있다.

자동차산업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간의 자동차 판매 증가율이 과거의 반정도 밖에 안되는 연1.5–2.5%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수 십억달러의 돈을 새 자동차 모델 시설과 디자인등에 소비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들의 성향을 바꾸기가 어려운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일단 소비자들이 새 차에 대한 호감을 잃었다면 자동차 회사들은 한때 누리던 경제의 중추역할을 회복 하기도 힘들다.

최근 상무성은 자동차 경제가 부활되더라도 자동차회사들이 예전같이 많은 판매와 이익을 남기기가 힘든것으로 결론짓기도 했다.

새차에 대한 수요감소는 주 원인이 치솟는 가격때문이다.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거주하는 린 바넷씨는 지난봄 차 엔진이 고장나자 새 차를 보러 나갔었다.

엄청난 차값에 망서리던 바넷씨는 결국 8백달러를 주고 엔진만을 바꿀수 밖에 없었다.

바넷씨는 "8천달러짜리 새차를 사는 것보다는 8백달러가 훨씬 부담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것이다.

자동차회사들은 비싼 차가격으로 인해 생기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시키기 위해 자동차 융자기간을 늘리고 있다.

제네럴 모터스의 융자 회사인 GMAC의 평균 융자기간은 76년의 36개월에서 현재 43개월로 늘어났으며 어떤 경우는 60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크라이슬러회사의 잭 기븐스 판매담당 부사장은 자동차 소유주들이 월부를 상환하는 동안에 새차와 트레이드 하는것을 꺼려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밖에도 소비자들은 사용을 줄임으로써 예전보다 오래 차를 유지할수가 있는데 개솔린값의 상승으로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케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동차 장거리 여행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것으로 상무성의 통계에서 밝혀졌다.

상무성 보고에 따르면 1972년의 연평균 마일리지는 1만184마일이었던것이 1980년도에는 9천4백마일로 떨어졌다.

자동차판매가 부진한 이유중의 다른것으로는 자동차외에도 새로 개발된 많은 상품들에 돈을 소비하는데도 있다.

물론 식품,연료비,주택비등이 지난 5년간 소득보다 많이 증가됐지만 보트,전자상품같은데에 선택의 여지가 더욱 많아 진것이다.

자동차업계는 전통적으로 어떤차를 갖고 있는가도 사회신분을 과시하는심리를 많이 의존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비록 차가 아니더라도 가정용 컴퓨터 또는 최신형 보트를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개성을 살릴수가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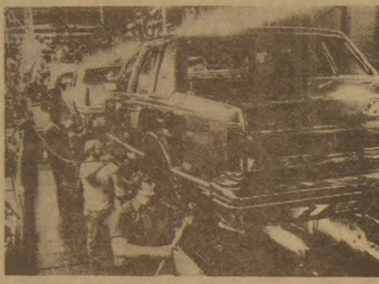
새 자동차에 대한 수요감소에는 자동차회사에도 책임이 있다. AMC의 제럴드 마이어스씨는 "안전과 경제성을 살리기 위해 만든 차들의 디자인이 별로 특징이 없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경제학자 윌리암 프리브씨는 소비자들이 더이상 자동차를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며 가정용 제품 같이 필요할 경우에만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동차제조회사협회의 통계가 잘 뒷받침해준다.

1970년 통계에서는 미국에서 운행되고 었는 자동차의 평균 연령이 5.5년 이었으나 1980년에는 6.6년으로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조회사들은 비교적 낙관적이다. 자동차산업의 부진이 단순한 경제침체 때문인 것으로 보고있으며 일단 경제가 회복될경우 소비자들의 성향도 바뀌어 새 차를 사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 계속되는 경제불황으로 미국의 자동차산업은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동사진은 미시간주웍솜 포드자동차 공장의 자동차부속품 조립광경.

◇세계 테니스계가 이상한 풍조에 젖어 들었다. 지난주 몸슨대회에서 1위를 한 이반·랜돌도 심판에게괴상한 손짓을 하고 있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선금)연 $99 월$9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三國志 (110)

글·高羽榮·그림

한국관

연중 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매일연재 캐나다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130)

팔리·모왓 원작·원재훈 옮김

"오호토이지 누구야!" 하고 나는 대답하면서 옷도입지않고 내텐트에서 홀딱 벗은채로 총을 움켜쥐고 오호토가 누워있는 바위틈에 쳐논 그의 텐트로 뛰어가 보았다.

비명소리는 내가 닿기전에 멈추었지만 그대신 그속에있는사람의 목소리 가 심한 공포로 인하여 마치 동물의 목구멍이 울리는소리마냥 목구멍에서 겨우나오는 신음소리만 들렸다. 나는 텐트문을 세차게 나꿔채며 열었다.

텐트막대기가 훤히 보일만큼 텐트의 한쪽이 쭉 찢어졌다.오호토는 그속에서 바짝 웅크리고 있었는데그 조그만 텐트속에서 죽은황소의눈을 해가지고 작은텐트 막대기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입술은 벌어져 있었고 그의 흠지막한 하얀 이빨이 별빛을 받고 이상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이름을 몇번 불러보았으나 돗자리위에 웅크리고 앉아있는그는 내목소리를 못들은것 같았다.아직도 그의 목구멍에서는 끄윽끄윽하는 소리가 여전히 계속해서 나왔다. 나는 거기에서 사람이 졸도할 정도로 무서워할만큼 위험한것이 주위에서 눈에 띄지않았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을수가 없었다. 순간적으로 나는 오호토가 미쳐버렸거나 성한사람이 살인광으로 변하는 북극의무서운 히스테리아에 걸렸다고 생각했다.

이 적막한 광야에서 미쳐버린 에스키모에게 잘못 걸려들었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속으로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총을땅에 떨어트리는 동시에 오호토의 머리카락을 흔들어 댔더니 그는 연약한 텐트벽으로 쓸어져 버렸다. 그는 무릎을 꿇고 힘을 다해서 똑바로서서 텐트 막대기에 걸쳐있는 천막을 떤리는 손으로 가리켰다. 나는 그제서야 안심이 되었다.

그의 행동은 말없이 무엇인가 나에게 호소하는것이었고 그의눈은 내얼굴을 보고있었다.그러나 그가가리키는곳을 바라보니 색이 바랜 천막과 어린나무가지로만든 껍질이 매끈하게벗겨진 장대밖에는 아무것도 발견할수가 없었다.

나는 무슨이유로 그가무서워하는지 아직도 종잡을수가 없었다. 마침내 나는 이치에 맞지도않게 총을집어들고 개머리판으로 그작은 텐트막대기를 힘껏 후려쳤다. 나로말할것 같으면 그때 내긴장을 풀어보려고 한 짓이었는데 뜻밖에도 그 바보같은짓이 오호토가 원하고 있었던것을 해치운 셈이었다.

오호토는 갑자기 풍선이 공기가 빠지는것처럼 침착해졌다. 그의눈은 감기고 고르지 못했던 숨결은 한숨을 푹 쉬더니 차분해졌다.그는 개처럼 웅크리고 누워버렸다. 잠시후에 오호토는 크게 코를골기 시작했다. 그날저녁의 일은 용두사미처럼 싱겁게 내가 당하고 말았다.

그는 이만저만 코를 고는것이 아니었다. 나는 홀딱 벗은몸에 모기떼가 매달리는것을 느끼고 급히텐트로 돌아와 그친구가 한짓을 생각하니 속이 뒤집히고 입맛이 씁쓸해졌다.

나는 네시간을 누워 있었지만 금방 일어났던일을 조롱하면서 부정하는것같은 오호토의 코고는 소리를 들으며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런일은 악몽이 아니라 실지로 있었던 일이었다. 먼동이 트기 시작하자 우리는 옷을 주워 입고 오호토를 보러갔다. 그는 아직도 자고있었고나는 그가 깊은 잠에서깨어나 부신햇볕에 눈을제대로 뜨지못하고 일어날때까지 발길로 툭툭 건드렸다.

그전주에 얼굴에난 종기로 말미암아 잠을제대로못잤기 때문에 그는이제 단잠을 자고있었던 것이다.

그는 아직도 잠시 누운채로 눈을 크게뜨고 전날저녁 나를 뚫어져라고 쳐다본것처럼 꼬나 보았다. 그의 입술이 못마땅하다는듯이 비뚤어졌다. 그때나는"아 맙소사! 또 시작하는군!"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한번 몸을 늘구려가지고 내가 개머리판으로 조진 텐트막대기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노(귀신)였었소. 이젠 도망가 버렸어요"하고 내뱉었다.

그가 다부서진 텐트에서 기어나와 우리옆으로 돌아설때 그의종기가 거의 가라앉아 나아가는것을 보고 우리들은 잠깐 놀랐다.

그 전날저녁만해도 고름이 잔뜩 흐르던 상처가지금은 바짝 마르고 새살이 돋아나오는 건강한 피부였다.오호토는 조심스럽게그의 뺨에있는 상처구멍을만져보고 몇일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면서"자 보시요! 이노가 도망가니통증도 말끔히 없어졌지요!"하고 말했다.

(계속)

제5회 수학경시대회

본 토론토 지구한인 대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학구력의 장려와 우수한 후배양성을 목적으로 수학 경시대회를 실시합니다.

참가자격 : 20세이하(1961년2월20일 이후생) 온타리오고교 재학중의 한국학생 쥬니어부—9, 10, 11학년 씨니어부—12, 13학년
시 간 : 1982년 2월20일 토요일 오전11시
장 소 : Univesity of Toronto(60 St. George St.) McLennan Physical; Lab. Room 102
출제방식및 수준
● 영문으로 쓰여진 과학배경의 수학문제
● Junior부는 9, 10, 11학년수준
● Senior부는 12, 13학년 수준 (단, 13학년 CALCULUS, ALGEBLA제외)
등록방법 : 아래의 양식대로 서신으로만 접수함 (참가자의 이름(한글·영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학교, 학년)
보 낼 곳 : KUSA/2067 Islington Ave #1114 Weston, Ont. M9P 2R8
신청마감 : 1982년 2월17일(수)
시 상 : Senior부 1, 2, 3등(장학금) Junior부 1, 2, 3등(상패및 부상)
참 가 비 : 없 음
문의전화 : 247-2998(김중수), 498-6380(임정혁)
발 표 : 4개 교포신문에 수상자 발표함과 동시에 개별통지함.

주최 : 토론토지구한인 대학생회
후원 : 한인장학재단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쉬는 비지네스(주5일)
TAKE OUT 카프페띠아 SHOP(아침7~저녁5시)
주 매 상 : $5,500 아 스 킹 : $18,950 배 트 : 년 $120,000
렌 트 : $1,000, 리스5년+5년 다운페이 : $150,000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좋은 비지네스

● 도나스 샾
①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9년(옵션가능), 현금 $250,000Down, 아스킹 $385,000
②주매상 $8,500, 렌트 $2,900, 리스9년+5년, 다운페이 $150,000, 아스킹 $295,000
③주매상 $6,000, 렌트 $2,650, 아스킹 $190,000(현금이면 기만불 디스 카운트, 리스20년
④주매상 $8,000이상(시외), 렌트 $1,700, 리스 19년, 현금 12만불 다운페이, 아스킹 $25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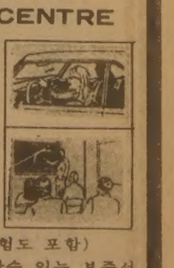
● 버라이어티
①주매상 $8,500, 리스9년+5년, 렌트 $900, 아스킹 11만5천달러(로타리오 인컴 벨1000달러)
~~②주매상 $13,000, 리스9년, 렌트 $1,850, 아스킹 15만9천달러~~ (SOLD)
③주매상 $7,000, 리스15년, 렌트 $950, 아스킹 7만5천달러(플라자 내)
● 햄버거 샾
● 드라이크리닝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B) 536—4250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ER TRAINING CENTRE

운전을 배우실 분들! 아래와 같이 3가지 종류가 있으니 택해 보세요.



1. 완전코스($199.00)
● 25시간의 실내강의
● 10시간의 운전교습(운전시험도 포함)
● 차보험 액을 최대로 할인할수 있는 보증서 발급
● 인컴택스 공제
※저녁과 토요일, 그리고 학교방학동안도 함.

2. 짧은(MINI)코스($69.00)
● 3번의 운전레슨
● 운전시험때 차대여해줌

3. 씽글(SINGLE) 레슨($15.00)
● 한번의 레슨
※ 운전시험때 차대여는 $15.00

All Courses Approved & Registered by the Ontario Safety League

2489 BLOOR ST. W. STE. 210 (JANE지하철 근처임)
766—4441, 766—4644
월~금 : 9시~6시30분, 토 : 9시~1시까지

市內電話料 時分制로

全대통령、遞信部 보고받아 주택·業務用요금 差等

市外통화 深夜엔 料金할인

올해 시내電話 百12萬臺증설

南北韓 離散가족 우편물交換 協定추진

올림픽對備 시설·서비스 國際수준으로

◇全대통령이 崔侊洙체신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있다.

체신부는 남북시범사업의 하나로 정부가 제의한 남북이산가족간의 우편물 교류에 대비, 남북한 우편물교환협정 체결준비를 이미끝냈고 88서울올림픽 개최에 따른 각종통신시설과 서비스체제를 국제수준으로 완벽하게 갖추기로 했다. 5일상오 全斗煥 대통령에게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힌 체신부는 또 올해부터 시외통화에대해 야간요금할인제를 실시하고 84년까지 도수제로 돼있는 시내전화의 요금체제도 통화시간에 따라 요금을 달리하는 시분제(時分制)로 바꾸고 업무용과 주택용의 전화요금차등제, 통화구역단위 요금제등을 단계별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 올해하반기부터 책임경영제도를 도입, 여건이 비슷한 우체국과 전화국을 군(郡)별로 재조정한뒤 경쟁을시켜 경영성과를 비교평가함으로써 수익증대, 인력절감, 비용감소등의 효과를 얻을 계획이다.

또 체신부는 금년연초부터 내무부 소관분야에만 국한, 실시하고있는 민원우편제도를 오는7월1일부터 정부28개부처·청까지 확대하고 TV의 1개화면에 2개국어가 나가는 음성다중방송을 83년부터 실험방송, 86아시안게임에는 본격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의 체신부보고내용은 다음과같다.

우정사업

▲위탁 우체국=우체국사(舍)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백화점 시장 호텔 아파트단지등에 취급수수료를 지급하고 우편및 우편환업무를 위탁하는 제도를 두어 대도시의 우편창구를 확대한다.

▲국제특급우편=올해부터 프랑스 호주 벨기에등 11개국에 송달날짜가 보장되는 국제특급우편을 확대실시, 기업의 통신이나 무역서류의 신속한 송달을 돕는다.

▲국제소포중량확대=현재 10㎏까지 무게를 제한했던 소포를 20㎏까지도 늘려 9월1일부터 실시한다.

▲국제우편보험제도확대=현재 10㎏이내 소포에 한해서 시행되고있는것을 8월1일부터 2㎏이내의 고화폐증권 귀금속까지 포함시켜 우편물이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때 손해배상을 받을수있게 한다.

▲다량우편요금할인=기업의 광고 통신용 이용이 많은 우편물에대해 10월1일부터 요금을 10%할인.

▲전자우편제도=계약서류 광고문안등 각종통신문을 우체국에접수시키면 모사전송한후 우편배달하는 제도를 신설, 국제는83년부터, 국내는84년부터 실시한다.

통신시설

▲시내전화공급=올해 7천9백54억원을 투자, 시내전화 1백12만대(전자식84만, 기계식28만)를 증설.

▲국제자동즉시통화=국제전화국에 전자교환기 3천회선을 증설, 83년부터 미국 캐나다 일본 서독 영국 호주등 24개국과는 교환을 거치지않고 다이얼만 돌리면 직접통화할수있게한다.

▲농어촌 전화보급=전화가 없는 1천48개 국민학교에 금년내에 전화를 모두 가설.

▲전화요금 구조개선=시외통화요금 야간할인제, 업무용과 주택용 전화요금 차등제, 구역요금제, 시내통화 시분제등을 84년까지 단계별로 시행.

▲TV난시청지역해소=전국 우체국을통해 난시청지역을 정밀조사한후 문공부 방송국과 협의, 86년까지 완전해소.

▲TV음성다중방송=금년내에 방식과 기술 기준을 제정, 83년부터 실험방송.

▲통신시설국제수준화=시내외 전화는물론 국제통신 텔렉스 레이다통신 국제팩시밀리통신시설을 86년까지 국제수준으로 만든다.

88올림픽지원

▲올림픽방송중계=국내의 경우 전국TV중계용 전송망을 84년까지 확장하고 경기장과 방송국간을 광통신(光通信) 체계화한다. 또 국제중계시설은 위성통신 4회선과 한·일 해저케이블 1회선을 TV회선을 확충하고 컬러TV중계장치를 보완한다.

"우편·電話 對民봉사는 不便없게 改善하도록"

全대통령 指示

全斗煥 대통령은 5일상오 청와대에서 崔侊洙 체신부장관과 3명의 관계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우편、전화업무에 있어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대한 덜어주도록 對民서비스를 착실히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 『체신사업에 필요한 우수한 기술人力을 확보하고 생산성을향상하며 경영을 합리화해 赤字幅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한다』고 당부하고 『전기통신업무와 관련된 不良品제조를 단속하고 전자공업 분야의 기술을 향상시킬수있도록 체신부에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체신부보고자리에는 劉彰順국무총리 金埈成부총리 姜慶植재무차관 孫守益총리行調실장이 배석했다.

국제勞組聯 委長 英 通商장관接見

全斗煥 대통령은 5일하오 청와대에서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의 나라야난 위원장(말레이지아)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이자리에는 權重東노동부장관 鄭漢株한국勞總위원장 국제자유노조아시아 지역 기구의 우사미·다다노브(宇佐美忠信) 의장이 배석했다.

全대통령은 이에 앞서 영국의 존·비핀 通商장관을 접견했다. 이자리에는 徐錫俊상공장관 李英勳駐英대사 모간駐韓영국대사가 배석했다.

民間단체補助 대폭抑制

내년豫算규모 올水準으로

올 豫算도 千5百億절감…執行유보

정부는 누적된 국가예산의 낭비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투자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위한 예산改革작업을 본격화, 국방비·지방재정교부금등 일부 경직성지출을 제외한 내년도 경상비·사업비예산규모를 금년수준으로 억제토록 노력하는한편 이미편성된 금년예산도 약1천5백억원 節減, 집행유보하는 실행예산을 편성, 운용키로했다.

全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경제기획원이 추진하는 예산改革작업은 방만한 정부의 民間團體보조금일제정비, 각종基金의통폐합,파출소·세무서·세관등 약2만여2~3차 관공서 經費의기준화, 수당을비롯한 인건비체계정비, 도로·河川개수예산 配分방법 개선등을 포함하여 정부예산 사업전반에 대한 낭비나 비효율적요인이 전면 재검토되고 있다.

5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예산改革작업중간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를위해 지난달2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감사원·기획원·내무부·재무부·총무처등의 국장급을 반장으로한 11개現地點檢班을 편성, 예산사업전반에 대한 실태분석에 나서는 한편 금년예산상 약76%의비중(7조2천7백82억원)을 차지하는 2천6백개 단위사업을 선정, 예산편성및 책임소재를 명확히하고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줄였을때의문제점등을 카드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있다.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같은 작업결과에 따라 금년예산기준 2백25개단체에 2백16건, 2천7백58억원에 이르는 방만한 민간단체보조를 비롯 각종 정부보조금을 과감히 정비, 한국유드호스텔協會등 민간협회보조,벽지버스路線결손보상이나 컨테이너보조등 다른 營利사업으로 커버될수있는 결손보조,한국에스페란토協會·부녀보호사업연합회등 實益없는 소규모보조를 과감히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에대한 보조도 우선 순위에 따라 보조율을 기준화하기로했다.

또 29개종류에 1천6백38억원이 금년예산에 책정된 각종基金도 통폐합, 실효성이 낮은 水産·기계·전자공업진흥기금, 금융지원轉換이 소망스런 관광,해운진흥기금등은 폐지 또는 통합키로 했다.

또 세무서·支派出所·세관등 약2만여 산하관서의 경비도 정원·업무량·시설물 규모에따라 等級化, 예산책정을 기준화하고 行事費·특별판공비·국제회의비등도 대폭 절감토록했다.

정치적인영향등으로 예산財源에비해 사업량만 엿가락처럼 크게 늘어난 일반도로·河川改修·漁港공사등은 사업량을 줄이더라도 實效있는예산을 뒷받침하고 획일적인비율로 책정된 공사시설의 附帶費예산도 實費化해나가는 한편 진료기관등 문제를낳는 의료보호酬價는 보험酬價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있다.

官僚체제의 定着化

實務局長 現場파악

全대통령, 9개部處업무報告 共通지시사항

全斗煥 대통령은 5일 체신부보고청취를끝냄에따라지난달26일경제기획원을스타트로 중앙부처에 대한 새해업무계획을 보고받기시작한 이후 모두9개부처에대한 보고청취를 마쳤다.

全대통령은 이들 9개부처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받는자리에서 각부처 공통사항으로▲官僚체제의 기능과 역할의 근대화 전문화를 기하고▲행정의 책임과 권한을下部단위로 이양, 모든공무원들이 책임과 소신을갖고 능동적으로 행정처리를 할수있도록 유도할것 ▲관료체제의 定着과 정책立案, 집행에있어 현장실정을 반영할것 ▲부정부패를 類型別로 찾아내 이를 척결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無事安逸을 적극배격할것등을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특히 부정 부패척결에 관해『부정 부패는 계속 안보적차원에서 다루어나가 깨끗한 행정풍토를 定着해나가야겠다는것이 나의 변함없는 소신』이라고 밝히고『그래도 부패사례가 적발될 경우 次上級者의 도의적 책임을 묻는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관료체제의 定着을 강조하면서『정치적으로 임명된 長·次官이 교체되더라도 국장들이 정책과 소관업무를 일관성있게 추진해야한다』고 당부하고『실무국장들은 책상위에서의 정책입안에 그치지말고 항상 현장을 직접 돌아보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 이를 반영시켜야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모든 행정처리에 있어서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한다는 것은 對民서비스에 있어서도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뿐만아니라 생산성을 향상시켜 국제경쟁의 成敗를 좌우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수있다』고 강조했다.

印尼、南北韓대화 仲裁說

丁議長·李鍾玉방문 겹쳐

日 아사히新聞보도

【東京5日=宋孝彬특파원】 인도네시아정부는 全대통령의 1·22의 평화통일제의에 따라 남북한의 대화재개를위해 중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5일 일본의 아사히(朝日)신문이 자카르타발신으로 보도했다.

인도네시아정부의 남북한 중재설의 근거로 이신문은 5일 丁來赫국회의장이 자카르타를 방문,정부요인과 요담한것과 거의 때를같이하여 북한 수상 李鍾玉이 4일 인도네시아를 방문, 스하르토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요인과 요담하고 있어 남북한의 대화재개를 위해 인도네시아정부가 활약할 수있는 환경조성이 되어있다고지적했다.

社告

엘마·올리베이라招請 바이얼린獨奏會

차이코프스키·콩쿠르1위 3월6일下午7시 世宗文化會館

한국일보와 日刊스포츠社는 78년 차이코프스키·콩쿠르에서 1위를차지한 미국의 젊은 바이얼리니스트 엘마·올리베이라를 초청, 3월6일하오7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新春연주회를 갖습니다.

엘마·올리베이라는 화려한 音色과 유려한 터치로「나단·밀슈타인의 귀족적인 抒情과 야샤·하이페츠의 환상적인 테크닉의 결합체」로 일컬어지는, 가장 뛰어난 젊은 바이얼리니스트입니다. 그는 데뷔이후 세계 유명한 오케스트라와의 협연및 南北美와 유럽순회공연을 통해 미묘한 大家로 각광을받고 있읍니다. 특히 樂器로서 바이얼린이 갖는 특유의 抒情性을 최대한으로 표출해내는 탁월한 역량과 풍부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독특한 선율은 젊은 연주자들의 음악이라는 평을 듣고있읍니다.

이번 來韓公演은 주옥같은 레퍼터리로 국내 클래식 팬들에게 신춘음악계의 序幕을 화려하게 장식할 것입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聲援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레퍼터리
모차르트 바이얼린 소나타 K379
R·슈트라우스 바이얼린 소나타Op.18
베토벤 바이얼린 소나타 Op.12
마리논 소나티네 No.5
사라사테 치고이네르바이젠

◇일시
1982년3월6일 하오7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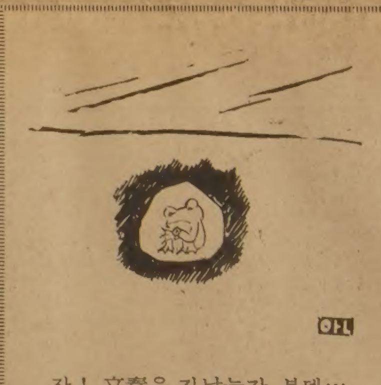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회원권
S석 10,000원
A석 7,000원
B석 5,000원
C석 3,000원
(문예진흥기금포함)

◇예매처
본사사업부 722-1472, 1575
대한음악사 776-0577
종로서적 722-2331
세고비아기타 724-6161
광생약국 362-7372
교보문고 725-6151
이태백안경 778-5103
세종문화회관 722-2721
삼익피아노 778-1117
서전오디오 323-1638
중앙악기사 261-7900

한국일보社

社會漫評



자! 立春은 지났는가 본데…

地平線

「중석불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했던게 30년전인 52년의 일이었다. 수출품이라곤 땅에서 캐내는 稀有광물과 인삼등뿐이었던 시절 텅스텐광석이 세계시장에서 알아주는 가장 큰 품목이었다. 이 중석을 수출해서 얻은 달러로 부당하게 돈벌이를 했다는 말썽이었다. 이때는 세계최대의 매장량을 갖고있는 중공이 국제시장과 담을 쌓고있을 때였다.

▼세계는 기름값때문에 허둥대고있지만, 미국으로서는 광물자원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작년10월 미국의 헤리티지재단이 경고했었다. 기름은 소비량의 절반이상을 생산하고있으니 그렇게 심각할것없다는 주장이다. 수입에 의존하고있는 전략광물의 공급이 끊긴다면 「파국」이 올것이라고 이연구보고서는 경고했었다. 와트 내무장관도 80년대의 중요과제는 광물의 확보라고 단정하고 있다.

▼레이건행정부의 국무장관이 되기전 80년10월 헤이그는『자원전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남아프리카지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흔히 「지하자원의 페르샤만」이라고 불리는 남아공이 확보해야 할 자원, 잠비아 자이르가 있는 지역이다. 구리 코발트 니켈 망간 크로뮴 같은 전략광물들이 이지역에 묻혀있기 때문이다. 망간 코발트 크로뮴은 미국이 1백%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78년에 나온 서독의 한연구보고에 의하면 크로뮴수입의 25%가 줄면 국민총생산의 30%가 떨어질 것이라고한다. 에너지뿐아니라 고도의 정밀무기와 항공기등을 만들수없게되고, 따라서 군사기구가 위기에 다치게된다. 세계가 전략광물에 신경을 곤두세우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국을비롯한 선진공업국들이 임자없는 바닷속에 눈을 돌리는 이유이기도하다.

▼바다밑 흙탕속에는 감자처럼생긴 주먹만한 광물덩어리들이있다. 이 광물덩어리들은 망간 니켈 구리 코발트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의 바다밑에 널려있는 희유광물은 코발트 2억4천만톤, 니켈 2억9천만톤, 망간 60억톤으로 짐작되고있다. 인플레가 계속된다면 3~8㎞ 바다밑 깊숙이 있는 이 돌덩어리들이 노다지가 될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의 광산업자들은 바다밑노다지를 끌어올리기위한 연구개발에 지금까지 3억달러라는 큰돈을 쓰고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노다지판은 하와이로부터 동남쪽에 이르는 중부태평양이다. 10년째 끌고있는 국제해양법회의에서 제3세계각국은 이노다지가 「인류공동의 재산」이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오는3월에 열릴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서방4개국이 독점태세를 굳히기로 했다는 일본의 보도는 자원전쟁의 새로운 국면이라고 할수있다.

종교서관
535-1920
●기독교및 일반서적
★ 일반서적 다량입하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714 BLOOR ST. W.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생명보험
●연금제도
●교육보험
●그룹보험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R. R. S. P
922-3111 (B)
791-8196 (R)

임송학 태권도 도장 2주년

RIM'S TAEKWON—DO SCHOOL

RIM SONG HACK · CANADIAN TAE KWON DO ASSOCIATION · TAE KWON-DO

개업 2주년 특별봉사

태권도

(79년 C.N.E. 시범경기광경)

● 자신감 배양
● 호신술 연마
● 튼튼한 체력연마및 인격도야
● 한국인의 긍지 함양
※교포자녀들에 한해 특별할인회비

1963 WESTON RD.
(Weston & Lawrence) Loblaws 앞.
전화 : 247—7577 임송학

Instructor: RIM, SONG HACK

美、「0의 選擇」草案제시

레이건、蘇의「2/3減縮제의」에 逆攻

"유럽 核미사일 解體땐 퍼싱·巡航등配置포기"

【워싱턴4日UPI=聯合】레이건美 대통령은 4일 유럽배치 중거리핵미사일의 제거를 위한 자신의『제로·옵션(零의 선택)』계획을구체화시킨 美·蘇간 조약초안을 소련측에 제시했다고 밝히면서 소련측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줄것을 촉구했다.

지난2일 軍縮會談서 傳達

레이건 대통령은 오는90년까지 유럽배치중거리미사일을 3분의2 감축하자는 소련共産黨서기장 브레즈네프의 제의가 나온지 만하루만인 이날 한 성명을통해 미국이 지난2일 제네바 중거리미사일 감축협상에서 이같은 조약초안을 소련측에 공식제시했다고 밝힌뒤『소련공산당서기장 브레즈네프는 전세계 인류위에 드리워진 核의 그림자를 감소시키기 위한중요한 첫걸음에참여해야한다』고 말했다.

레이건 대통령의 이같은계획에 의하면 미국은 소련이 유럽을 겨냥하고있는SS4、SS5、SS20미사일을 해체할 경우 퍼싱、미사일과 지상발사巡航미사일등 최신예미사일의 유럽 배치계획을 포기하도록 되어있다.

레이건 대통령은 유럽배치 중거리미사일감축협상을 가능한 빨리 진전시키기 위해 이같은 조약초안을 제시했다고 밝히고 조약이 체결된다면 세계의 안보와 안정、평화에 커다란 기여가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백악관은 이날 또 데비드·거건공보국장을 통해 발표한 별도의 성명에서 브레즈네프의 유럽배치중거리미사일 3분의2감축제의를 거부하는한편 미국이 군축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브레즈네프의 비난을반박했다.

거건공보국장은 소련이 유럽배치중거리미사일감축제의에 근거로 제시한 현재의 東西간 미사일 균형자료가 신빙성이 없는것이며 따라서브레즈네프의 제의는 수락할수 없는것으로 판단되었다고 말했다.

◇會見하는 레이건—무바라크 레이건 美대통령과 호스니·무바라크 이집트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두번째 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있다。【워싱턴 4日AP電送=聯合】

美蘇軍縮협상 續開
어제 브레즈네프提議이어

【제네바4日UPI=聯合】美·蘇군축대표들은 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서기장의 새로운 유럽배치중거리핵미사일 감축제의가 발표된 다음날인 4일 제네바군축협상을 속개했으나 회담내용을 일체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측의 폴·니체수석대표와 소련측 수석대표 유리·비친스키는 이날 제네바의「平和街」에 소재한 소련대표부에서13차 군축협상을 개막、2시간20분동안 유럽배치핵미사일 감축문제를논의했다.

그러나 양국대표들은 회담내용을 일체 비밀로 한다는 앞서의 합의에 따라 이날 거론된 의제를 공개하지 않았다.

메아리

80년3월、치안당국에서 서울변두리 산흥주택가 5천23가구를 상대로 도둑을 맞은 일이 있는가? 도둑을 맞은후 신고를했는가?하는식의 몇가지 설문을 가지고 여론 조사를 한 일이 있다。이때 응답자 중 15%가『도둑맞은 일이 있다』했으며 그중 40%만이『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도둑맞고도 절반이상이 신고를 하지 않은 셈이다。

신고않는 이유를 다시 캐본 결과『귀찮아서』가35%、『바빠서』가30%、『못찾아 줄것을 뭐…』하는 것이20%、『잡지도 못할테니까』가 15%였다。더욱 주목을 끈 점은『신고했는데도 수사당국이 꿀먹은 벙어리더라』고 대답한 것이 60%였다는 사실이다。

최근 서울지방검찰청은 시민들의 신고나 고발정신이 부족한 것을 감안하여 도둑을 맞았을 경우、그 피해자에 대해 일정양식의 신고서만 제출토록하고 소환을 하여 조서를 꾸민다든지 하는 일을 폐지한다는 새「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사실 도둑을 맞아도 피해액이 웬만큼 크지않으면 신고후 불려다니고「조사」받고 하는것이 귀찮아 아예 신고조차하지않고 덮어버리는 일이 예사인성 싶다。『귀찮아』하는 사람이 3분의1을 넘고있을 정도니까。

被害者學

또 경찰에서는 주택침범절도범이 전체의 56·1%인데다 그런사범이 현저히 늘고 있음에 비추어 이 절도범이나、장물취득범에 대해서는 중형을 구형하고 감호청구까지 할 방침이라고 한다。더구나 주거침범절도범은 사세불리하면 강도범으로 돌변하는 일이 적지않다。절도라해도 요즘에 와서는 더 흉포해지며 대담해져간다고 검찰측은 개탄하고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않으면 초동수사가 늦어지고 범인검거나 도난품추적도 그만큼 어려워진다。신고하면 곧 수사당국은움직여야 하고 그 도둑을 꼭 잡아내야 한다。그리고 신고해도 반응조차없더라고 60%의 피해자가 대답한 사실을 당국은한번더 새겨들어야 할것같다。

이스라엘의 벤저민·멘델손이란 범죄심리학자는「피해자학」(빅티몰로지)이란 학문을 개발하였다。이것은 피해자의 입장을 잘 분석하여 그 결과로써 범죄현상을 설명해 보자는 학문이다。

피해자가도둑을 무서워하고、신고도 않고、당국이 귀찮게 구는것이 싫어 없던일로 해 두려고하는 심리는 이 학문으로 결론짓는다면 범죄를 더 조장하는것이 된다。자、이제부터는 시민은 신고정신을 더높이고 당국은 신고자를 성가시게 하지 않도록 해야하겠다。

아르헨·베네수엘라 將校·外交官 니카라과「反革命」支援

"온두라스등에 근거지"

【뉴욕4日AP=聯合】니카라과는 아르헨티나軍장교들과 베네수엘라 정보장교및 외교관들이 니카라과국내「반혁명세력」의 정부전복활동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포착했다고 미구엘·데스코토 니카라과 외상이 4일 밝혔다.

데스코토외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니카라과정부가 아르헨티나軍 외교관및 장교들이 반혁명세력들의 군사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보고를 입수했다』면서 이들 반혁명세력은 인접 온두라스와 코스타리카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우리는 베네수엘라민간인、軍정보요원및 니카라과주재 베네수엘라 외교공관원들도 니카라과에서의 반혁명활동에 개입돼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갖고있다』고 주장했다.

美·埃2次頂上회담
"平和協定이 最上의수단" 팔레스타인 自治해결에

【워싱턴4日AP·UPI=聯合】레이건美 대통령과 호스니·무바라크이집트 대통령은 4일 백악관에서 2차정상회담을 갖고 캠프·데이비드평화협정에 의한 中東평화추구방식이 팔레스타인문제를 타결짓는 최상의수단임을 재확인했다.

양국대통령은 이날 30분간의 2차정상회담이 끝난후 발표된 공동성명을 통해「아랍—이스라엘분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佛 軍輸送機추락 搭乘客 36명死亡

【파리4日AFP=聯合】승무원5명과 외인공정대원 31명을태운 프랑스군용 수송기가 3일밤 東아프리카의 지부티에서 추락、탑승자전원이 사망했다고 프랑스 국방성대변인이 4일 발표했다. 프랑스 국방성대변인은 사고가 발생한 사막지대의 산에서 추락한 NORD·2501수송기의 잔해가 구조대에 의해 발견됐으나 생존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民間·軍用機 얽혀 日上空서충돌위험
日사또교수警告

【아끼다(秋田)4日共同=聯合】일본영공은 민간기와 군용기들이 복잡하게 비행하고있어 위험이 가득차 있으며『이같은 사정을 방치할 경우 언젠가는 끔찍한 공중충돌사고가 발생할것』이라고 4일 日本의 한 대학교수가 경고했다.

그는 고정된 美공군접근통제공중구역(소위 요꼬다(橫田)구역)이 하네다를 출입하는 비행공중구역을 협소하게 만들고 이바라끼(茨城)縣소재 햐꾸리(百里)항공자위대기지와 나리따공항의 비행구역이 얽혀 과밀하고 복잡한 공중구역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수리남에 쿠데타
南美小國… 센大統領 사임

【암스테르담5日UPI=聯合】남미의 소국인 수리남의 민간정부가 전복되고 헹크·친·아·센 대통령이 사임했다고 5일 네덜란드 방송이 보도했다.

수리남수도 파라마리보의 믿을만한 소식통들은 민간정부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을 축소시킨 새로운 헌법을 둘러싸고 정부와 군부간에 마찰이 빚어진데 이어 군부가 5일 실권을 장악했다고 전했다.

방송보도들은 수리남 통신이 센 대통령의 사임을 보도했다고 전했으며 네덜란드의 ANP통신은 현재 수리남의 실권은 다시·부테르세 대령이 장악하고있다고 말했다。

75년11월 네덜란드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인구38만의 소국인 수리남은 지난80년2월 25일 한육군하사관이 주동한 군사쿠데타로 당시의 민간정부가 실각하고 같은해 4월 센 대통령이 취임했다。

◇얼굴에 맺힌 고드름… 지난3일 美덴버시에서 영하의 날씨속에 화재진압작업에 나섰던 한소방관의 머리、눈썹、수염등이 온통 고드름으로 뒤범벅이됐다。【덴버4日AP電話=聯合】

"美·日 哨戒艇 공동製作"
예산심의中斷、「武器輸出3原則」論爭
日社會黨議員이 폭로

【東京4日=聯合】일본 衆議院은 4일 해상자위대가 현재 사용중인 PSI 對潛哨계정이 美日공동연구개발에 의해 제작되었다는 야당의원의 폭로를 둘러싸고 예산심의가 중단되는등 한때 파란을 빚었다。

이날 질의에 나선 社會黨의 오오이데·슌(大出俊)의원은 美日양국이 지난56년부터 14개군사기술교류계획의 일환으로 68년부터 현재 해상자위대가 19대를 보유하고있는 PSI대잠초계정을 美日양국의 기술및 경비공동부담에 의해 제작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자료의 제출을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美日양국간의 약속상 이자료의 공표가 불가능하다는이유로 오오이데의원의요구를 거부했다。

오오이데의원에의하면波高3m、풍속25m의 악천후에도 이착륙이 가능한 이 PSI 대잠초계정은 美日양국의 기술및 經費협조로 지난57년부터 개발에 착수되었으며 68년 완성된후 이에관한 제작기술일체가 미국측에 양도됐다는 것이다。

한편 미야자와(宮澤喜一) 관방장관은 이날 이에대한『사실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하면서도『무기수출 3원칙에 기술도 포함된다는 정부의 견해가 76년에 나온 이상 그 이전의 군사기술협력은 문제가 될수없다』는정부측 입장을 강조했다。

脫色된「모스크바의 長女」
프랑스 共産黨 脫蘇선언의 背景
작년「미테랑非難」번복 추태
親蘇입장이「마르세失望」으로
黨再建위해「유로코뮤니즘」불가피

國際焦點

프랑스공산당의 독자노선 선언은 소련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한다。

프랑스공산당 서기장 조르지·마르셰의 지난3일자「脫蘇선언」은 유럽공산주의 운동사에 획을 긋는 상징적사건으로 볼수도있다。그것은유럽정치에 있어서 큰변화의하나다。프랑스를 마지막으로 유럽의 친소 정통적인 공산주의정당은 모두 사라졌다。

공산주의 운동이 싹을 튼 1910년부터 유럽 각국의 공산당은 소련을 중심으로 강한 연대에의해 유지되어왔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소련으로부터 하나둘씩 이탈해갔다。각국의 사정에 맞게 독자노선을 걷기시작했다。이른바 자유스러운 형태로 공산주의 활동을 펴는 유로코뮤니즘 운동이다。

특히 폴란드사태를 계기로 이탈리아、스페인공산당의소련탈피가 선명하게드러난 최근까지도、프랑스공산당만은 의연히 친소노선을지켜왔다。

그러한 프랑스공산당을 서유럽은「모스크바의 長女」로까지 지칭했다。프랑스공산당은 아프가니스탄침공은 물론 폴란드사태에 대한「문제가림」의 문제에서 분명하게 소련지지의 자세를 보였다。

소련은 유럽의 각공산당이 멀어져가도 크게 낙담하지않았다。서구유럽에서 가장 큰 친소세력、프랑스공산당과의 밀접한 관계는 대단한위안이 됐다。

더군다나 소련은 프랑스공산당이 작년이래 미테랑좌익정권에 연립내각으로 참여하고있어 새로운 기대를 걸고 있었다。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파리근교 생투앙에서 열리고있는 제24차 프랑스공산당대회는 이같은 독자노선선언으로 한층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이 당대회는 개막전부터 10년간 당을 이끌어 온 조르지·마르셰서기장의 정치생명과、대통령선거패퇴이후 최초로 당의 진로를 결정하는 대회로 관심을 끌었다。

소련은 수슬로프사망이후 당내2인자로 부상한 콘스탄틴·체르넨코(정치국원겸서기)를、중공은 이례적으로 姚廣주불대사를 대회장에 참가시킬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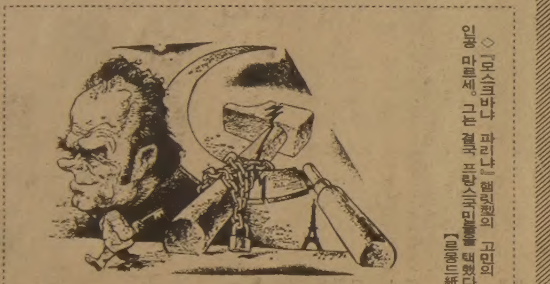
프랑스공산당은 거의 모든 선거에서 20%선의 지지를받아 왔으나、지난해 4월 대통령선거에서는 최저수준인 15%선으로 떨어졌다。최근의 여론조사(소프레스)에선 더욱 더 떨어지고 있음이 나타났다。이같은 현상은 당내 반대파에 의해「모스크바노선의 추종」과「마르세에 대한 실망」에 연유한 것으로 풀이됐다。

프랑스 공산당은 76년 제22차당대회에서 사실상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포기했다。그후 이탈리아및 스페인공산당과 화해했으나 국내 社·共연합의 결렬、78년 총선거에서의 社·共연합 패배를 거쳐 79년의 제23차 대회에서는또다시「前衛黨」으로서 입장을 강조했다。유로코뮤니즘으로부터의 離反이었다。동시에 사회당과 날카롭게 대립을 계속해왔으며、친소노선을 선명히 했다。

이러한 공산당의 태도는마르세서기장을 중심으로한 당지도부의 결속력을 강화했다。그러나 그반대급부로 당지도부의 경직성을 내외에 드러냈다。더욱더 마르세는 지난해 대통령선거때 1차투표에서 미테랑을 비난했다가 2차에선 지지로 전환하는 추태를 보여 신망을 잃었다。

마르세는 지난3일 당대회 개막식에서 예상을뒤엎고「프랑스사회주의는 다른곳에서 조작된것이 아니며 그렇게될수도 없다」고 脫蘇독자노선을 과감히 천명했다。마르세의 선언은「프랑스의 色」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당세를재건하려는 단순한 속셈에서나온것일지도 모른다。그러나 그파문은 클것으로 보인다。프랑스정국은 물론 국제정세에도 미묘한 영향을 미칠가능성이 있다。우선 다른 서구유럽 공산당과의 관계 밀착이 예상되고 있다。어떤식으로도 소련의 반응이 있을것이다。

가장 끈질긴 이념으로 뭉뚱 뭉쳐온 공산주의 운동도 점차 조금씩 부서져 이산돼가고있다。【李鍾九기자】



◇『모스크바냐 파리냐』햄릿처럼 고민의 주인공 마르세。그는 결국 프랑스국민들을 택했다。【르몽드紙】

버림받은 아랍 미니國
페르시아灣 라스·알·카이마
추장 UAE통합 반대로 굶주림 속에 파업·데모등
人口6만…石油한방울없어

라스·알·카이마는 호르무즈해협근처의 페르시아灣에 위치한 인구 6만의 작은 아랍토후국가이다。

주변에있는 7개의 토후국가로 구성된 아랍에미리트연방(UAE)이 주체할수없는 오일·달러로 흥청대고 있는데 비해 이나라는 갈수록 퇴폐해져 가고있다。

추장 사크르·모하마드·알·카시미가 라스·알·카이마의 UAE통합을 결사반대하고 있기때문이다。

라스·알·카이마는 UAE토후국중 원유를 수출하지 못하는 4개토후국중 하나로 UAE종주국인 아부·다비의 경제원조없인 지탱이 곤란한 나라이다。카시미 추장은 아부·다비의 추장이자 UAE 대통령인제이드·술탄·알·나하얀과 조상때부터 犬猿之間이다。

10년전 영국으로부터 토후국이 독립、아부·다비가 주축이되어 UAE를 결성하자 카시미추장은 UAE참가를 거부하고 독자노선을 추구해오고 있다。하지만 형세는 갈수록 카시미에게 불리해져가고 있다。

아부·다비의 나하얀추장은 라스·알·카이마에 경제원조를 거부했고 카이마의 국민들은 카시미추장의 독자노선에 불만을 터뜨려 파업과 데모를 하기에 이르렀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작년10월 라스·알·카이마의 발전소에 화재가 발생、전기생산이 불가능해졌다。섭씨50도를 오르내리는 나라가 냉방용 전기부족으로 겪는 고통은 꽤나 심각하다。

하루 8시간씩만의 송전은 가뜩이나 불만에 찬 국민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한것이었지만 아부·다비가 경제원조를 외면해 발전소재건은 요원한 상태이다。

그래도 카시미추장은 굽히지않고 알라神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있다。그는「페르시아灣에 석유를 가져다주었던 알라神이 언젠가는 라스·알·카이마에도 서광을 줄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이코노미스트誌】

거구장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피로연
— 예 약 환 영 —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새벽2시
목, 금, 토, 일 : 권순근 악단 출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당신의 운명을 말해드립니다
(손금 카드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드립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시는 당신께 꼭히 도움이 되어드릴것을 약속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는 어느분이든 예외없이 충고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와 보세요! 초능력적인 힘을 보실것입니다.
●예약은 필요없읍니다.
PRIVATE AND CONFIDENTIAL READINGS
291 AUGUSTA AVE
921-0552 7일 오픈 9시~저녁9시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왜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JAGUAR 종합보험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자동차보험.
*비지네스 보험.
*가보험.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5주년 기념 세일
⊙전자 CASH REGISTER
⊙각종 전기전자 계산기
⊙각종타자기
⊙금고, 책상, 캐비넷
김 성 수
교포경력(TORONTO 15년 경력)
분납가능

金東吉、伊루치아노와 爭覇

자카르타 아마복싱
許永模·金基澤銅메달에 그쳐
準決서 美선수에 기권勝

◇金東吉선수

【자카르타4日AP·聯合】 한국의 金東吉(라이트웰터급)은 4일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속행된 제5회 대통령컵쟁탈 아마복싱선수권대회 준결승경기에서 美國의 제프·게터즈에 기권승을 거두고 결승전에 진출, 이탈리아의 브루노·루치아노와 金메달을 놓고겨루게 됐다.

게터즈는 전날 준준결승전에서 오른손목을 다쳐 이날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라이트플라이급의 許永模는 준결승경기에서 필리핀의 요세프·바야에 판정패, 동메달에 머물렀으며 라이트급에 출전한 金基澤도 蘇聯의 강호인 메르티시안·바치크에 1회33초만에 KO패 당해 동메달을 따내는데 그쳤다.

결승전은 6일 거행된다.

◇준결승전적
▲라이트웰터급
金東吉(한국) 기권 게터즈(미국)
▲라이트급
바치크(소련) KO(1회) 金基澤(한국)
▲라이트플라이급
바야(필리핀) 판정 許永模(한국)

88년 五輪대비 資料수집위해
합동實務班 해외派遣
올림픽開催地대상 내일부터 27일까지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SLOOC)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사무국과 협의와 자료수집등을 위해 SLOOC、대한체육회, 올림픽대회개최에 따른 실무원위원회및 서울시직원으로 합동실무반을 구성, 7일부터 27일까지 스위스의 로잔느를 비롯하여 84년올림픽개최지인 로스앤젤레스와 몬트리올(캐나다)·뮌헨(서독)·東京(일본)등 도시에 파견한다.

합동실무반은 SLOOC 全炳振사무차장을 단장으로 하여 모두 7명으로 구성되었다.

◇4일열린 세계 알파인 스키 선수권대회 활강종목에 참가하여 14년만에 캐나다에 금메달을 안겨준 게리·소렌슨양이 활강코스 질주도중 점프 모션을 보여주고있다. 【슐리트밍 (오스트리아) 5日AP=聯合】

加소렌슨 滑降1位
墺女子 알파인스키

【슐라트밍(오스트리아)4日AP=聯合】 캐나다의 게리·소렌슨은 4일 오스트리아의 슐라트밍에서 벌어진 세계여자 알파인스키선수권대회 활강경기에서 1분37초47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캐나다가 여자스키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낸것은 지난 68년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2위는 美國의 신디·넬슨(1분37초88)·3위는 캐나다의 로리·그레이엄(1분37초91)이 각각 차지했다.

이날의 경기에서 1위부터 10위까지의 선수중6명이 美國과 캐나다 선수였다.

전국男女 氷上대회
마지막날 9개 수립돼 모두 17개

제17회 故방상인추모 전국남녀빙상경기대회 최종일 경기가 5일泰陵국제스케이트장서 폐막, 대회신기록 9개가 나와 이번 대회서 모두 17개의 대회신기록이 작성되었다. 최종일 여일반 1천m서 李聖愛(외환은)는 1분31초58을 기록, 첫날 5백m서 대회 신기록을 세운데 이어 또다시 대회 신기록으로 우승했다. 李聖愛는 종전기록 1분40초49를 무려 8초91이나 단축했다.

여일반 1천m서는 1분34초68로 2위를 차지한 朴美子(외환은)와 1분35초99로 3위를 마크한 金順玉 역시 대회 신기록이었다. 한편 남대 1천5백m서 羅潤洙(단국대)는 2분07초23을 기록, 종전 대회기록 2분09초5를 경신했다.

◇최종일기록(각종목 1위)
▲남일반 1천5백m=김은환(맨드라미) 2분01초 ▲동남대=나윤수(단국대) 2분07초23(대회신·종전 2분09초5) ▲동남고=김철원(경기고) 2분16초04 ▲동남중=정현국(동화) 2분19초02(대회신·종전 2분23초20) ▲여일 1천m=이성애(외환은) 1분31초58 ②바미자(〃) 1분34초68 ③김순옥(〃) 1분35초99 (이상 대회신·종전 1분40초49) ▲동여대=임현숙(동국대) 1분32초13 (대회신·종전 1분37초22) ▲동여고=허성윤(숭의) 1분38초75 ▲동여중=동현주(숭의) 1분45초29 ▲여고3천m=유부원(유봉) 5분30초23 ▲동여중=김영원(숭의) 5분25초37 ▲남중5천m=김관규(두내) 8분09초40 (대회신·종전 8분31초10) ▲동남대=백철기(경희대) 8분27초33 ▲남고=황익환(의고) 8분02초75

◇大會新 李聖愛 力走
기록을 세운 李聖愛 (외환은)
여일반 1천m에서 1분31초58로 대회신

소프트볼 미정
臺灣、中共초청문제싸고 贊反
포터ISF會長 방문때結論

【臺北4日UPI=聯合】 臺灣은中共초청문제를 둘러싸고 혼란을 빚고있는 오는7월의 제5회 세계여자소프트볼 선수권대회 개최문제를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짓지 못했다고 체육계소식통들이 4일 말했다.

소식통들은 이달말께 돈·포터국제소프트볼연맹(ISF)회장이 臺北에 올때까지는 臺灣이 최종결정을 유보할것이라면서 臺灣에서는 中共초청문제를 둘러싸고 臺灣의 경제발전상을 보여주기위해 中共팀을 참가시키자는측과 中共의 「소프트볼외교」공세를 우려하여 이를 반대하는측간에 의견조정이 이뤄지지않고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오는 7월 臺北에서 열리기로 돼있던 이번 대회는 中共의 초청문제를 놓고 臺灣·中共·ISF측간의 이견이 갈린 태도표명으로 난관에 부딪쳐있는데 臺灣은 이달말 臺北을 방문하는 포터회장과의 협의, 대회개최문제를 최종결정지을 예정이다.

남자水泳팀 창단 江原大

江原大가 남자수영팀을 만들어 금년시즌부터 각종대회에 출전한다. 江原大수영팀은 도내 春川機工을 졸업하는 3명의 선수를 이미 확보하고 3명을 추가선발 모두 6명의 선수로 3월초 창단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로써 국내대학 수영팀은 남자9개교 여자 5개교등 14개교로 늘어났다.

◇수영팀명단
▲단장=李相潤(총장) ▲부장=嚴基善(체육부장) ▲선수=元鎬相·張允熙·白永兵(이상春川機工)

리용 피겨스케이팅
東獨、蘇누르고우승

【리용4日AP=聯合】 東獨의 사빈네·베스·탈로티어바호組는 3일밤 리용에서 폐막된 82년도 유럽피겨스케이팅선수권대회 페어종목에서 蘇聯선수들을 누르고 우승, 17년간에 걸친 蘇聯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이날의 경기에서 현재의 세계선수권자인 蘇聯의 이리나·보로비에바, 이고르·리소프스키組는 같은 蘇聯의 마리나·페스토바, 스타니슬라프·레오니비치組에 밀려 3위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마라톤 진흥계획
太白市 선수強訓

【太白=聯合】 太白市는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에 대비한 마라톤진흥계획을 마련하고 4일부터 선수 강화훈련에 들어갔다.

초·중·고 선수 20명으로 구성된 마라톤강화훈련단은 국민학교 선수의 경우 3천m를 주종목으로하고 중학생은 1만m, 고등학생 2만m를 집중훈련시킬 계획이다. …회, 성적이 우수한 선수를 뽑아 오는4월에 열리는 도단위 역전마라톤대회에 출전시킨뒤 계속사업으로 선수강화 훈련을 실시키로했다.

太白市는 선수들의 심폐활량훈련을 위해 매일 1회씩 黃池에서 太白山까지 20㎞를 오르내리는 훈련을 하기로했다.

마라톤 코치 朴슥用씨(35)는 『88년서울올림픽대회에서는 太白市 선수들이 세계제패를 할수있도록 우수선수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333-2961

海外流藝화제
美·蘇 한人物놓고 映畵대결
러시아革命과 美기자의 一生

제작비 1억달러

○…제39회 골든·글로브상에서 워런·비티에게 감독상을 안겨준「공산주의자들」은 러시아혁명을 직접 취재한 美國人기자의 일생을그린 3시간반짜리 대작영화. 이번에는 蘇聯이 프랑코·네로를 주연으로내세워 같은내용의 작품을 제작, 美蘇가 한인물을 놓고 영화대결을 벌이게 됐다.

美國영화는 러시아혁명의 현지촬영이 불가능했으나 소련은 리드의 생애를 그린 영화를 두편이나 만들면서 현지촬영은 물론 대규모 병력까지 동원할 예정.

첫번째 작품「성난 멕시코」는 이미 제작이 끝났고 두번째작품은 리드의 전기인「세계를 뒤흔든 10일간」. 두작품의 감독은「전쟁과 평화」의 세르게이·본다르추크로 1만명의 소련군도 동원된다고. 두편의제작비는 1억달러상당. 내년 소련의 2천개극장에서 동시에 공개된다.

한편 본다르추크감독은 두작품이 완성되면 이룬 7~8시간짜리 TV용 미니시리즈로 편집, 전세계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버튼,「바그너」主演

○…리처드·버튼이 작곡가 바그너의 일생을 그린TV전기물「바그너」에주연으로출연. 바그너 사망 1백주년인 83년도에 방영을 목표로 촬영이 진행중이다.

英國의 토니·파머가 감독하고 스크립트만도 3백50페이지에 달하는 이대하물에는 로런스·올리비에, 존·길거드, 랠프·리처드슨등 英國의 쟁쟁한 명우들이 공연하며 바네사·레드그레이브가 바그너의 두번째 부인으로출연. 게오르그·숄티가 음악을 지휘한다.

「바그너」는 빈, 뮌헨, 취리히, 부다페스트, 나폴리, 베니스등지를 돌며 촬영될예정.

버튼은 바그너에 관한 책을 모두 섭렵했는데 바그너를「가장 최악의 이기주의자」라고 혹평.

"바그너는 利己的" 버튼 혹평
劇場主보다 觀客이 먼저觀覽

◇프랜시스·코폴라

◇리처드·버튼

코폴라 異端者낙인

○…「대부」와「현대묵시록」의 감독 프랜시스·코폴라가 최근 완성한 환상적인 뮤지컬「One from the heart」를 극장주와 배급사에 선보이지도 않은채 관객에게 먼저 내보이는 이단으로 또 화제.

이 영화는 결혼생활에 염증을 느낀 부부가 그들의 이상적인 짝을 라스베이가스에서 찾는다는 내용인데 테리·가, 나스타샤·킨스키, 라울·줄리아, 프레드릭·포레스트가 주연.

코폴라는 이영화를 자신의 돈 1천4백만달러와 은행융자 1천만달러를 넣여 완성.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자신의 스튜디오에 라스베이가스를 재현한 세트를짓고 제작완료 기일을 몇번이나 연기했고 사방에서 빚을 얻어대느라 바빴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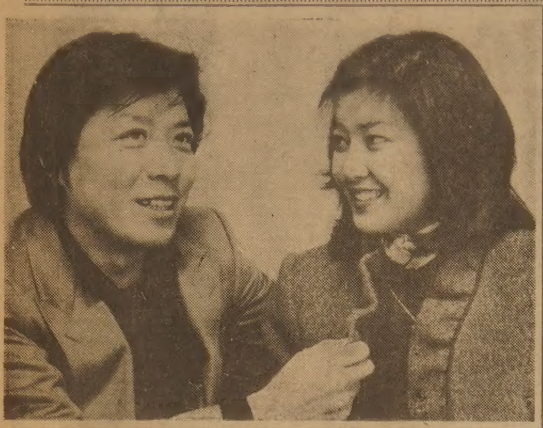
그는 이영화제작으로 거의 파산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비평가들의 평이 별로 좋지 않아「할리우드의 이단자」코폴라의 최신작의 운명은 순탄치 않을 것같다.

저주의땅 할리우드

○…「킹콩」「플래시 고든」등 블록버스터에서 대작을만든 이탈리아출신 제작자 디노·디·로렌티스가 보따리를 몽땅 싸놓고 할리우드에서 뉴욕으로 옮겼다.

이유인즉 할리우드에서 만든 영화가 줄줄이 흥행에 참패했고 지난해 외아들과 동생을 잃었기 때문일것이라는 추측. 미신을 믿는 그에게는 할리우드가 저주의땅으로 여겨졌을것이다.

디노는 1년전 자신의저택을 캐니·로저즈에게 1천4백50만달러에 팔아넘겨 화제를 낳기도 했다. 【LA支社=朴興津기사】


◇사극단골의콤비 李正吉과 金英蘭. 『역사를 재조명, 새로운 윤리를 창조해내는 연인상과 부부상을 그려내고싶다』고 한다.

우리는 콤비
史劇 단골夫婦 李正吉·金英蘭
"前生에 인연" 착각할 정도

그들은 과거를 사는 부부다. 몸은 현재에 있지만 의식은 역사속에 산다. 흘러간 인물들의 恨을 간직한채 끊임없이 현대에로의 부활을 갈구한다.

MBC·TV 탤런트 李正吉(38)과 金英蘭(27)콤비는 史劇의 단골 부부. 78년「옥녀」에서 처음 부부로 연을 맺어「연지」에서 정을 깊이했고 현재 방영중인「새아씨」에서도 부부관계를 계속 잇고있다.

『우리는 주로 史劇에서 공연하게 됐죠. 그럴때마다 우리가「전생의 부부」가 아니었나 하는 착각에 빠지게 돼요. 우리 부부(극중의)는 과거의 사실을 현재에 조명, 오늘을 사는 시청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위해 온몸으로 연기하려 애쓰고 있읍니다』

이들은 史劇이 단순한 역사의 模寫에 그치지 않고 역사속의 인물이 연기를 통해 다시 살아나게 하려고 고심한다고 털어 놓는다.

金英蘭은 극중에서 李正吉의 정실로 또는 후실로서, 정숙한 부인으로 간교한 여인으로 때로는 표독한 마님으로 역사를 살아온 여인이다.

이제는「새아씨」에서 남편을 리드하는 능동적인 여인상으로 올라섰다. 그동안 金英蘭의 의식도 그렇게 변모한것일까. 어쨌든 이들 콤비는 곤궁한 역사의 껍데기를 쓰고있다.

『오랫동안 부부로 출연하다 보니 어떤상황에도 대처할수 있는 순발력과 부부감각이 생겨나요』 李正吉이 후배 金英蘭을 감싼다.

『처음에는 좀 서먹서먹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李선생님과 함께라면 마음이 놓이고 편해져요』 金英蘭은「李선생님」이라고 부른다. 그만큼 이들은 부부로서의「전생의 인연」을 갖지 않고 있는것일까.

『우리가 부부역만 하라는 법은 없을것 같아요. 독특한 연인으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표현하고 싶어요』

李正吉은 KBS 탤런트5期, 金英蘭은 TBC 탤런트17期, 남의집 식구로 출발했으나 지금은 인기 정상의 짝이다. 【참】

팝토픽
센터폴드 1위固守

★…게일즈 밴드의「센터폴드」、대릴·홀과 존·오츠의「Can't Go For That」、그리고 올리비어·뉴튼·존의「피지컬」등 3개곡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 美國 텐·톱·팝 싱글차트 1위에서 3위까지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

캐시박스가 선정한 이번주 텐·톱·팝에 따르면 주스·뉴튼의 신곡「가장 아름다운것」이 지난주 10위권밖에서 8위로 껑충 뛰었으며 텐·톱·컨트리 웨스턴 싱글차트에서 4위에 랭크되었다.

◇캐시박스선정 이번주 텐·톱·팝
①(1)=Centerfold(J·게일즈밴드)
②(2)=I can't go for that(대릴·홀 & 존·오츠)
③(3)=Physical(올리비어·뉴튼·존)
④(5)=Harden my heart (퀴터·플래시)
⑤(6)=Turn your love around(조지·밴슨)
⑥(4)=Waiting for a girl like you(포리너)
⑦(12)=Shake it up(카즈)
⑧(11)=The sweetest thing (주스·뉴튼)
⑨(7)=Let's groove(어드·윈드 & 파이어)
⑩(9)=Leather & lace(스티비·닉스 & 돈·헨리)

英선 골든브라운

★…펑크라는 새물결의 선두주자인 그룹 스트랭글러스의「골든 브라운」이 이번주 英國 베스트 셀링 싱글차트(멜러디메이커선정)의 톱을 차지했다. 【AP】

또 4인조 리버풀밴드인 오키스트러 매뉴버스의 새히트곡「오를레앙의 귀부인」이 지난주 12위에서 5위로 뛰었으며 지난주 순위에 기록되지도 못했던 잼의「멜리스라는 마을」이 8위로 부상했다.

왜건、앨범판매先頭

★…英國의 3대 레코드잡지인 빌보드와 캐시박스、레코드 월드에 의하면 지난해 가장 많은 앨범판매실적을 올린 로크그룹 남녀가수는 REO 스피드 왜건과 케니·로저즈및 패트·베나터임이 밝혀졌다. 【AP】

디스코音樂 聽覺장애일으켜
英대학연구팀 調査보고서

★…정기적으로 시끄러운 디스코음악을 듣는 사람은 10명중 1명꼴로 청각장애를 일으키고 있다는 조사보고서가 최근 英國에서 발표됐다.

英國 리드공과대학 로널드·편교수팀은 英國리드지방의 청소년 8백21명(9~12세)·3백31명(13~16세) 4백90명을 대상으로 조사,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연구팀은 청소년들을 디스코음악을 들으며 춤을주는 그룹과 그렇지않는 그룹으로 나누어 청력을분석했는데 그 결과 디스코를 정기적으로 즐기고있는 그룹에서는 10명중 1명꼴로 청력장애를 입고있었으며 시끄러운 음악을 듣지않는 청소년에비해 전체적인 청력손실이 3.dB(데시빌·소리의강도)정도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外誌】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9>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숨바꼭질 ⑱

『후원자라뇨?』

수지는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할만큼 가슴이 울렁거리고 있었다.

『꽤 큰편으로 대단한 약속은 안했지만 꽤성부른 고아 하나를 찾아봐 주고싶다는 착한 마음은 의심할 여지없는 후원자야』

『남자가요 여자가요?』

수지는 그 미지의 후원자한테 똑바로 맹렬한 질투를 느끼면서 어떠한 그를 헐뜯을 구실을 찾아내려고 조바심했다.

『남자야』

『젊은?』

『젊지, 아직 삼십 안쪽이니까』

『혹시 한때 호기심을 품고있을 거예요. 틀림 없어요. 맙소사 차라리 식모로 간 것만도 못하지 그런 난봉꾼한테 그 어린것을 넘겨주다니』

어림짐작이 들어맞은 수지는 의기양양해서 유원장에게 대들었다. 앞서가던 유원장이 휙 돌아서면서 엄격한 얼굴을 했다.

『수지답지않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그사람 그런 사람아냐. 유복하고 학식 있고, 처자식 있고, 도덕적으로도 하자가 없이 살아온 무엇 하나 남부러울게 없는 신사야. 목이를 돌봐주기로 결정한것도 내가 추천한 몇명의 될성부른 고아중에서 이름만 보고 고른 거야』

『이름만 보고요?』

『그래 만나보고 고르면선택되지 못한 아이에게 남은 패감을 줄거라는 세심한 배려까지 하더군』

『그래도 이름만 보고 자기가 책임질 사람을 고른다는건 말도 안돼요』

『말이 이름만 보고지 이름만 봤지 나이어도 목이가 우리 고아원에서 제일 많고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한 아이도 목이 하나야』

『아줌은 제가 직접 그남자를 만나보기전엔 못믿겠어요』

『믿고 안믿고는 내가 이미 결정한 일이야. 그사람은 그 일에 익명을 요구했고 나는 그것을 약속했어.』

『그럼 그사람이 특이하게 떠간게 아닌가요?』

수지는 차츰 마음이 놓이면서 약간 맥이 빠지기도 했다.

『자기가 보증서서 취직을 시켜주었고, 만약 앞으로 대학입학 검정고시와 대학에 합격을하면 학비를 대주겠다고 약속했어. 그뿐이야』

『부자라더니 인색하군요?』

수지는 아직도 그 미지의 후원자에 대한 적의(敵意)를 못버리고 비꼬았다.

『행복한 사람이 그만큼이라도 자기의 행복을 불행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려고 하면 그건 좋은사람이야. 그런 좋은 사람이 이 세상엔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아마 나처럼 그런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해본 사람이나 알까? 수지도 그런 좋은 사람이었잖아? 그 사람의 선의를 의심하지만』

유원장이 온화한 음성으로 그 미지의 사람과 수지를 동격으로 만들자 수지는 내심 울컥했지만 아니라고 항의할만한 말은 찾지못했다. 밑천도 못건지게 참패한 느낌을 어쩔수 없었다.

『목이를 만나볼수 있을까요?』

『그럼, 그럼 목이는 어디까지나 자유의 몸이야. 어엿한 직업여성이고』

유원장이 안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서 주소를 적어주었다. 종로에 있는 재수학원이 목이의 새로운 주소로 돼있었다.

『그 독지가가 재수학원 원장인가요?』

수지는 아직도 목이의 행방보다 그 독지가의 정체가 더 궁금한 마음이었다.

♡ 주간여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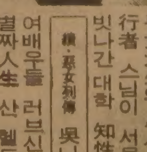
인기절찬 판매중!

2월7일자

주간女性

31살 미모의 女僧이 대학首席졸업 —東大 불교학과 海住 스님의 캠퍼스 追憶

두女大生의 수석 졸업 秘訣
行者 스님이 서울大에 合格
빗나간 대학 知性의 문젯점
續·蘇女列傳 吳나라 西施
여배우들 러브신 촬영 秘話
별짜人生 산 헬드클럽 관장
컴백說 도는 金晶淑 데뷔記
잉꼬 夫婦가 조각배 타고 고기잡이 同苦同樂
캐나다 首相 부인의 男性 편력 自叙傳 2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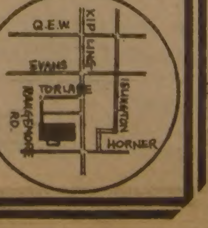

〈탤런트 林藝英〉

판매처 : 각한국식품점

한국인의 도매상
한인연합상사

Feb.10 - Feb. 20		Spec.	Reg.
ABC Detergent	24x1.51	21.39	23.30
Cottonelle Bathroom Tissues	24x4's	31.69	35.10
Royal Bathroom Tissues	24x2's	18.99	20.50
Royal facill Tissues	36x3's	29.00	31.90
Pamper toodler	12x24's	54.29	57.25
Pamper extra-ab.	12x24's	43.33	45.85
Twizzler super sicorice	70x5¢	1.89	2.29
Catellie-Ready cut macaroni	24x500g	15.85	18.10
" Long macaroni	24x500g	15.85	18.10
" Long spagattie	24x500g	15.85	18.10

한 인 연 합 상 사
251－6578
U.K.L.CASH & CARRY
27 RANGEMORE DR.TOR.



카메라 바자및
무료 크리닉

(촬영 실기 지도)

바야흐로 다가오는 봄철을 맞아 본협회 에서는 사진 애호가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코저 다음과 같이 사진바자및크리닉을 실시하오니, 소중히 간직하신 카메라도 체크업 하시고 필요없는 기구나 악세서리도 있으시면 물물교환이나 판매도 하실겸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및장소 : 2월27일오후2시한인회 강당
2. 바자 품목 : 각종카메라, 촬영기, 프로젝타, 렌즈, 조명기구, 암실기구, 악세서리및 사진재료
3. 크 리 닉 : 일류회사에 다년 근무한 수명의 기사가 완벽한 기구를 갖추고 카메라의 주요부분및 후래쉬등을 무료 테스트함.
4. 실기 지도 : 푸로모델을 동원 실내촬영에 대한 실기지도및 촬영.

※기타 바자물품을 가져 오실분은 30분 일찍 도착하여 진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회장 전경수(438－4435), 총무 이기성 (265－9270)

주최 : 캐나다한인사진협회

大學生에「1人 1카드制」

學業성적外 學內생활전반 個別평가기록

教授추천때 客觀·공정위해 成績변동·품행등 全人평가

文敎部

대학생들의 학업성적 이외에 학내 생활전반을 개별적으로 평가、기록해 두는「학생1人 1카드制」가 실시될 전망이다. 문교부는 5일 4년제 대학졸업생의 사회진출에 있어 교수추천제가 강화되는 것과 관련、추천의 공정과 객관성을 유지시키는 한 방안으로 각대학별로 학생들의 학업성적 이외에 교내생활에 관한 개인별 평가기록을 작성、비치토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評價한계·方法은 아직미지수 生活위축등 副作用 보완돼야

문교당국자는 이날 교수추천제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아직 미정이지만 각교수들의 주관적 일시적평가를 막는방안으로 이제까지 없던 새로운형태의 대학생활평가 카드制를 도입、대학 1학년입학때부터 4학년졸업때 까지의 개인별학교생활、성적변동、품성등 학교생활전반을 기록하게될것이라고 밝혔다。

이당국자는 현재 각대학이 학생들의 대학생활기록으로 공식작성하는것은 학적부와 성적기록뿐으로 이것만으로는 졸업생의 전인격적 평가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다양한 영역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새기록카드制가 도입되면 교수들은 이를 기초로 추천서를 작성하게될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아직까지 새카드가 학생들의 어떤영역을、어떤 방식에 의해 평가기록하게 될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앞으로 대학들과 광범위한 연구검토를 거쳐 결정될것이라고 말했다。

문교부는 또 교수추천에앞선 생활평가카드의 작성은 지도교수단독으로 할것이 아니라 해당학과장등 관련교수 3~4명을 참여시켜、평가의 객관성을 기할방침이며 교수추천단계에서도 추천서에 나타난 성적과 품성이 제대로 돼있는지를 파악하기위한 평가기구도 대학별로 설치할 방침이다。

문교관계자는『지금도 교수추천제가 일부 시행되고있으나 일시적이고 형식적일뿐더러 평가자료또한 부족하다고 판단돼 선진외국의 예에따라 이같은 방안을 강구하게 된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생활평가 카드制가 대학생들의 교내생활을 더욱 위축시키지 않겠는가라는 우려에 대해『그같은부작용을 최대한보완하면서 공정하게 시행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大 奬學金 전체 30%線 7천4백명에 21억8천만원

서울大는 5일 82학년도교내장학금 지급계획을 확정、전체학생 2만4천9백명(대학원생포함)의 30%에 달하는 7천4백82명에 대해 21억8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학부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면제받는 A급장학생이 1천3백4명、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받는 B급장학생이 6백6명으로 모두 1천9백10명이며 재학생은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면제받는 A급이 3천2백39명、기성회비 또는 수업료를 면제받는 B급이 6백61명으로 모두 5천8백10명의 학부학생에게 15억7천여만이 지급된다。

한편 대학원생의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받는 신입생이 7백93명、수업료를면제받는 재학생이 8백79명으로 모두1천6백72명에게 6억1천8백여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成敗는 교수所信에" 전국대학 학생처장협의회 주최로 延世大에서 열린 교수의 학생추천제 개선을 위한 세미나。 전국34개 종합대 학생처장과 업계인사담당자및 문교부 관계자들이 참석、대학생들의 사회진출때 교수추천제를 강화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教授추천제 活用잘하면 大學교육을 一新"

어제 추천제 改善세미나

전국34개종합대학과 업계는『대학졸업자의 사회진출방식으로「교수추천제」가 교육적으로 매우 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이를 적극 활용한다』는데 합의했다。

5일 하오 延世大구내에서 전국34개 종합대학학생처장과 일부업계 대표는「교수추천제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공동으로열고 이같이 결론지었다。

이날 주제강연과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토의에서대학측은 교수추천제가 독일、영국、일본、미국등 대다수 선진국에서 이미 확립된 제도로 성공적으로 활용되고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의경우 교육풍토、교수의 자질등 어려운 여건이 있으나 대학교육정상화를위해서는 이를 적극 시도、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측은 또『교수추천제의 성패는 선진외국처럼 우리교수들이 소신과 확신을갖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된 추천서를 쓸수있을것인가』에 달려있다고 지적하고『우리대학이 맞고있는 여러가지 교육적문제를 극복해 이제도를 확립해 나가야할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대학학생처장들은『교수추천제가 대학풍토를 일신시키는 계기를 만들것』이라면서『이제도로 교수는 학생에대해 보다많은 접촉、관찰을 하게되고 그들과 생활하는 시간을 늘려나가게될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수들은 또『이제도가 활용되고 기업들이 교수추천서에 내용을 받아들이기시작할때 교수와 대학의 권위는 자연히 회복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는 교수추천제실시에관한 구체적인 사항은별도의 실무회의를 구성、결정하도록 위임했다。

▲朴煐植교수(延世大학생처장)=현재의 공개경쟁 시험으로는 수험생의 전인적평가가 어렵다。 오늘 세미나는 약 한달전 문교부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현재는 취업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해 마련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교수와 학생관계가 밀착되고 대학의 사회적권위도 회복될수 있을 것이다。

▲金秉玉교수(延世大독문학)=독일의 교수추천제는 한마디로 추천서가 공명정대하다는 것이다。 추천서는 우리처럼 구비서류가 아니라 하나의 중대한 문서이며 해당전문분야에대한 증명서의 성격을 띠고있다。 이추천서는 학생의 실적、공적、그리고 사생활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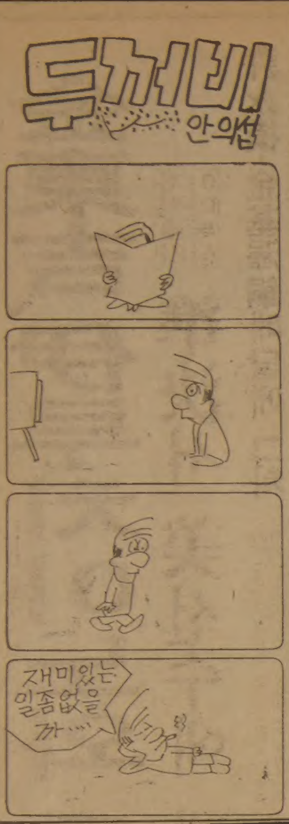
▲尹慶南교수(建國大정치학)=영국의 대학교수는 교수가 학생개개인을 완전히파악하고있다。 담당교수는 기숙사감이나 목사、의사로부터 학생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기록한다。 따라서 학과장의 추천을 따기란 하늘의 별따기이며 본인모르게 추천한다。

▲宋直縣씨(三星물산총무부장)=80년대에는 각기업들이 인재난에 허덕일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교수 추천은 현재 있으나 마나다。 온화적 관대성때문에 모두가 과찬투성이다。 이런추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교수추천으로 입사를 결정하는문제는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나 단기적으로는 의문이다。 추천방법을 더연구해달라。

▲琴東信교수(檀國大법학과)=일본에선 교수추천을 못얻으면 상급학교진학은 물론 취직에도 큰 타격을 받는다。

추천자는 자신의 명예와 신의를걸고 쓰기때문에 사회적으로 공신력을 갖게되는것이다。 한번 엉터리로 쓰면 다음부터 그교수의 추천서는 아무데도 통하지않는다。

일본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면 지도교수의 명령에절대복종、자신의 장래가 교수에게 달려있다는 소속감과 연대감을 갖게된다。



「漢藥취급권」紛爭확대

聲明戰후 서울 일부藥局 시위撤市

大韓藥師會、"불편주는 集團철시是正"

한약(漢藥) 취급권을 둘러싼 약사、한의사 단체간의 지상성명전에 이어 최근 서울일부 변두리지역 약국들이 한때 시위철시까지 벌이는파문이 일고있다。

서울冠岳區 약사회(회장 朴鍾律·45) 소속 3백15개약국들은 지난4일 하오6시부터 5일상오10시까지 일제히 철시했다。

冠岳區약사회는 4일 하오 간부회의를열고『「한의사협회가 약사들이 약국에서 한약을 취급할수 없다」고주장하는 것은 약사법에 보장된 약사들의 고유 권한을 무시한 중대한 침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무기한폐문을결의、이날 하오 6시부터 일제히 문을닫았다가 5일 상오6시 다시 회의를 소집、『국민보건을 위해 일단 문을열고 우리의 주장을펴자』고 결정、이날 상오부터 다시 문을 열었다。

한편 대한약사회측은 긴급이사회를 열어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한 별도 대책위원회를 구성、이를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며 집단철시등 지부단위 개별은 하지 못하도록 결의했다。

최근 한의사、약사단체간의 분쟁은 한약의보존、가공、추출법등을 수록한 약사조제지침서를 놓고 한의사단체가 이의 삭제를 주장하며 성명、농성등을 펴면서 발단됐다。

초저녁 住宅街 강도 3人組…寶石등 털어

4일 하오8시께 서울麻浦區西橋洞395의20 李榮縣(48·세일철강부사장)집에 20대 3인조강도가들어 안방에서 TV를보던 李씨의부인 鄭姚喜씨(41)와 장녀 仁容(19)등 가족4명을 과도로 위협、1캐럿과 3푼짜리 다이어반지 각1개、비취반지와 보석、현금15만원등 모두8백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털어 달아났다。

鄭씨에 의하면 담을넘어들어온것으로 보이는 범인들은 李씨의장남 東奎군(16)의 목에 길이20cm 가량의 과도를 들이대고『말을 듣지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고 위협、넥타이로 손발을묶고 이불을 덮어씌운뒤 장롱속에있던 손금고를뒤져 금품을털어갔다。

결혼예물、보석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진주 오팔
536-1692

경찰관·稅關員결탁 「알부민」大量밀수

2百53병빼돌려 2명手配

경찰관이 세관 검사직원과 짜고 대용혈액주사제인 알부민 2백53병(싯가 3천만원상당)을 밀수입했다가 제보를받은 세관 감시직원이 덮치자 달아났다。

5일 서울세관에 의하면 金浦공항경비대 정보반소속 李태근순경(33)은 지난달 29일 상오7시30분 LA발 KAL 005편으로 귀국하는 장인 李재웅씨(63·全州市高士洞)가 알부민 2백53병을 휴대품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을 고교후배인 金浦세관 입국검사장 직원 扈海城씨(35)에게 부탁、관세를 물지 않고 빼돌렸는데 지난1일 이같은 사실을 제보받은 세관 감시반이 서울江西區傍花洞 신안아파트 7동203호 李순경 자택을덮치자 李순경과 장인이 물건만 엘리베이터안에 버려둔채 도주해버렸다는것。

또 자신이 빼돌린 물건이 말썽이 난것을 눈치챈 세관원 扈씨도 일부러 행방을 감춰버렸다。

서울세관은 달아난 李순경등 2명을 수배했다。

卒業시즌 오픈 어제 가톨릭大

가톨릭大는 5일 하오3시 동교강당에서 올들어 전국대학중 처음으로 학위수여식을 갖고 박사18명、석사29명、학사1백63명을 배출했다。

陸大 어제 卒業式 大統領賞 吳眞煥소령

82년도 육군대학 정규과정 ○○명의 졸업식이 5일상오11시 육대강당에서 육군교육사령관등 군고위장성과 가족친지들이 참석한가운데 거행되었다。

이날 졸업식에서 吳眞煥소령이 대통령상、金碩輝소령이 국무총리상、崔學秀소령이 국방부장관상을 각각받았다。

太平洋이은 友誼의 結緣

샌앤토니오에「光州붐」…協力다짐

美、調印式후「韓美우호의 해」를 宣布

【샌 앤토니오(美國텍사스州)=朴興津기자】光州市와 미국 텍사스州의 샌 앤토니오市가 자매도시가 됐다。

자매결연 조인식을위해 샌 앤토니오市를 방문한 金良培光州시장과 헨리·시스니로스 샌 앤토니오시장은 4일하오 1시30분(현지시간) 샌 앤토니오시 회의실에 마련된 조인식장에서 두도시의 자매결연조인문서에 각각 서명、자매도시로서 우의를 굳히고 상호협조해나갈것을 다짐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金시장과 동행한 光州지역 실업인 20여명을 비롯、샌 앤토니오市 시의원 10명、시유지 1백80여명과 두도시의 결연을 주선한 샌 앤토니오교민회간부 이천용씨、한국일보업무이사 裵成煥씨、한일은행LA지점장 유시열씨등도 참석했다。

이날 샌 앤토니오市 TV방송(UACC·TV)은 조인식 광경을 현장중계했다。

시스니로스 샌 앤토니오시장은 조인식에서 인사말을통해『우리시는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에 경의를 표한다』고전제、『샌앤토니오시는한국과 멕시코를 연결하는 삼각무역의 중간지점으로 3국간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는 지리적여건을 갖고있는데 이번에 두도시가 자매결연을맺게됨으로써그기능을 더욱 잘해낼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우리가 한미수교 1백주년이 되는해를기해 자매도시가 된것은 큰의미가 있는일』이라고 밝히고 82년을 샌 앤토니오시의「한미우호의 해」를 선포했다。

金良培시장은 답사를 통해『光州市는 이번기회에 샌 앤토니오시의 발전적 측면을 많이 배워갈것이며 두도시가 서로 도와 발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하자』고 제의하고 오는5월 시스니로스 시장과 관계자들이 光州市를 공식방문토록 초청했다。

조인식이 끝난후 시스니로스시장은 金시장과 裵成煥한국일보 업무이사에게 명예시민배지를 수여했으며 金시장은 태극기와 光州市기를 전달하고 시의원들에게도 기념메달과 기념품을 선물했다。

光州시장일행은 4일과 5일 샌앤토니오시 상공회의소가 베푸는 만찬에 참석、경제문제에 관한 브리핑을 들었으며 이도시의 의료기관과연구센터등을 돌아보고 5일하오 워싱턴으로 떠났다。

學生체력장 檢査 오래달리기 追加

文敎部、내년부터

문교부는 학생들의 기초체력을 높이고 88년서울올림픽과 86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한다는 취지아래 오는83학년도부터 초·중·고교의 체력장검사에 오래달리기(장거리달리기)종목을 부활하기로 했다。 문교부가 각시도교위에 시달한 초·중·고교체력검사제도개선책에 따르면 오래달리기의구간은 ▲국민학생6백m ▲중·고교여학생은8백m ▲중·고남학생은 1천m이며 오래달리기 실시전에 건강진단을가져 병약자나 신체이상자는 제외시키기로했다。

이에따라 내년9월에 실시될 초·중·고교의 체력검사부터 현재 시행중인 1백m달리기、제자리멀리뛰기、턱걸이(남) 팔굽혀매달리기(여) 윗몸일으키기、던지기등 5종목외에 오래달리기가 추가되며 상급학교진학을위한 체력장 성적에도 오래달리기종목이 들어가게 됐다。

문교부당국자는 이날『오래달리기종목추가에 따라 과거와 같은 사고의 재발이 우려되는것은 사실이나 학생들의 기초체력향상을 위해서는 이종목의 부활이 부득이 했다』고 말하고『병약자나 신체이상이 있는 학생은 사전에 최대한 가려내 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萬景峰號화재 日정박중9명火傷

【東京5日=宋孝彬특파원】요꼬하마(橫濱)에 정박중인 북송선 萬景峰호(3천5백73톤)가 5일상오7시 화재를일으켜 승무원 조리사등 9명이 중경상을입고 3시간만에 진화됐다。

이 만경봉호는 조총련계동포10만명을니이가따에서강제로 북송했으며 요즘은 북송자가 급격히 줄어들자 화물·여객선으로 일본을 왕래하면서 간첩과 조총련의 거점교육선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29일 요꼬하마항에 정박한 이만경봉호는 승객42명에 비해 승무원은 2배인 83명으로 대부분이 간첩교육을위한 골수당원들인것으로 알려져있다。

만경봉호의 화인은 1층에 있는 냉동기계실에서 가스가 새어 폭발한 것으로 보이며 요꼬하마해상보안청소속 소방정2척과 20대의 소방차가 동원、3시간만에 진화됐다。

표주박

泗川서 9살때 家出했던主婦 이제 30代、부모애타게 찾아

○…농촌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9살때 집을 나온 가정주부가 부모를 찾아줄것을 본사에 호소해 왔다。

○…경기 楊平郡 楊平邑 楊根4里528 金순덕씨(32)는 9살때 고향인경남 泗川에서 한젊은이에게이끌려 서울로 올라와 성장、지금은 12살과11살난 형제를둔 가정주부로 가정을꾸미고 있는데 너무어릴때 부모의결을 떠나 고향도、부모 이름도확실히 모른다는 것。

○…단지 어머니가 왼손에 화상을 입어 엄지와검지를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이 접혀있는 것만 기억한다는 金씨는 남편 李아성씨(40·농업)와 함께 14년동안이나 부모를 찾아 헤맸으나 찾지 못했다며 자기를 당시 서울로 데려왔던 30대 남자의 연락을 기다린다고호소。

한국일보 詩壇

쓰고싶은 詩

高斗東

먼장 하늘이 활짝
퇴고
사람들 눈이
휘둥그래 질

그런 詩를 쓰고싶다
그런 날을 맞고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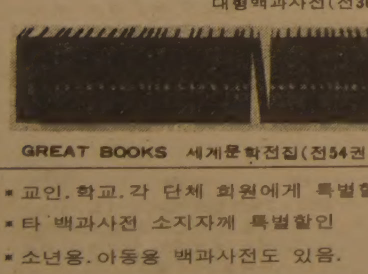
훨—훨 長天을 날면
하소연 할 곳
있을까。

歲月은 하염 없이
悲戀에 젖어
흘러가고

이 겨레
애 끊기는 울길
시들대로 시들었다

어느날 한 한숨
아래
쓰고픈 詩를 쓸는지。

BRITANN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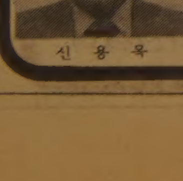


BRITANICA 3
대형백과사전(전30권)

GREAT BOOKS 세계문학전집(전54권)

- 교인. 학교. 각 단체 회원에게 특별할인
- 타 백과사전 소지자께 특별할인
- 소년용. 아동용 백과사전도 있음.

특히 학자. 학생. 사업가. 부모들을 위해 30만종 이상의 각방면에 관한 자료를 무료제공함.



신 용 묵

신용묵
전화 : B)536－9082, R)245－7522

한국일보 가두 판매처

본사는 주3회 각식품점에 신문을 배달, 판매하고 있음.

본보 취급 식품점

●서울식품	: 367 PITFIELD RD.	291-8317
●동양식품	: 1662 JANE ST.	248-5131
●한국식품 본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한국식품 동부	: 2810 EGLINTON AVE.E.	261-6111
●한국식품 서부	: 1054 ALBION RD.	742-7711
●제일식품	: 712 BLOOR ST. W.	532-1054
●고려식품	: 680 BLOOR ST. W.	531-2242
●삼복식품	: 2437 FINCH AVE. W.	743-8270

현재 주3일 배달, 1부당 30¢
※〈주간여성〉도 판매함 $2.00

한국일보발송부

THE KOREA TIMES
안녕하십니까

한국일보 오타와 지국장입니다

이 태 은 : ☎ 722－6133

기사 · 광고 · 구독등 신문사 관계사항 일체에 관해 도움 드립니다.

THESE TIMES NEED
THE KOREA TIMES

어린이 귀신꿈은 갈등表現

慶北大醫大 李竹內교수팀 분석

귀신은 抑壓 意識이 投射된것 同化와 再生의 人格발달 과정

情緒함양에 妨害요소 제거해야

◇어린이들이 귀신꿈을 자주꾼다면 어떤 갈등을 겪고있지 않은지 살펴주도록 한다.

어린이들은 많은 꿈을꾸며 자란다. 어린이들이 자주 꾸는 꿈중의 하나가 鬼神꿈. 어린이들이 귀신꿈을 꾸고 놀라깨어나면 할머니들은 『키가 자라느라고 꾸는꿈』이라고 안심시키는게 보통. 그러나 최근 발표된 한論文은 『어린이가 꾸는 귀신꿈은 兒童이지니고있는 갈등의 무의식적 표출』이라고 지적하고 부모들은 이에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慶北大醫大 李竹內·吳信烈교수팀(神經精神科)은 慶北 金陵군과 大邱시내 2개국민학교 아동 3백41명을대상으로 1개월동안 꾼 꿈의 내용을 조사 분석한「국민학교兒童의 鬼神꿈 연구」란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이들 어린이들이 꾼 꿈은모두 1천41건이었으며 이중想像的 生物을 배경으로한꿈은 1백15건이었고 귀신을 내용으로한 꿈이 40건이었다. 나머지는 龍·怪物·天使나 仙女·샌타클로즈·도깨비·슈퍼맨·드러큘러·부처님·하느님·용왕·염라대왕·人魚·황금돼지·신령님등 다양했다. 이중 괴물·드러큘러·도깨비를 모두 귀신꿈으로 보면 귀신에관한 꿈이 60여건이나 된다.

이들중 부분적으로나마 귀신의 형상이나타나 정신의학적인 분석이가능했던 15건을 선정, 연구한결과 꿈의 배경에 어린이들의 갈등이 내재되어있음을 밝혀냈다.

어린이들의 꿈속에 나타난 귀신의 모습은 검은그림자, 하얀소복차림, 흰천을감은모습, 검은몸에 눈만있는 모습, 까만한복차림등이었는데 대체로 아무도없는 캄캄한복도나교실, 컴컴한동굴, 지하실, 자기집주위의 으슥한곳에서 나타나 덤비거나 잡아먹는것으로 표현되고있다. 귀신과 꿈속의 自我관계를 분류하면 귀신에게 공격을받아 도망가거나 (7건) 반대로 공격을가해 죽이거나 쓰러뜨리거나 (3건) 귀신에게 잡아먹히거나 (2건)결혼(1건)하는 것등으로 나타났다.

李·吳교수는 귀신꿈자체가 集團意識(社會의식)에 의해 억압된 自我의 그림자적 성격을 띤다고 말하고 善과 悪, 黑과白의 양면성을지니고있는 귀신꿈은 아동이갈등을 지니고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런 귀신꿈에서는 귀신이 나타나는 장소, 귀신이 둔갑한 특정인물등에도 신경을써야한다. 즉 교실에서 귀신이 나타났을땐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는 하나의 무의식적 赤信號이며, 가정이나 집주위일 경우에도 비슷한 갈등적 상황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또 귀신이 어머니나 친구 교사등 어떤 특정인물로 둔갑했을 경우도 그 사람에 대한 내재된 갈등이 무의식상태에서 표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꿈에 자신이 귀신이 되어 친구 또는 형제를 잡아먹거나 귀신에게 잡아먹히는것은 그 갈등을 극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잡아먹히는 것은 再生의 과정이며 잡아먹는것은 同化의 과정으로써모두가 인격발달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것이란 해석이다.

이들 연구자들은 어린이가 말하는 귀신꿈 얘기는 그냥 듣고 웃어넘길것이 아니라 한번쯤 세심하게 분석, 정서에 나쁜영향을 미칠수 있는 요소는 제거해주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鈴】

"秘密을 너무 강조하면 純潔교육 效果줄인다"

性敎育지침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座談

「規制」보다「自覺」일깨워야

中學校가 더 위험한時期…早期교육 바람직

바른人生·異性觀 북돋우어 自然스럽게

○○○○○○○○

대한여성교육동지회(회장 鄭喜卿)가 주최하는 제4회 전국여성교육세미나가 溫陽에서 열렸다. 「여성교육과국민윤리교육의 연계」를 주제로한 이번 세미나에는 전국의 중·고등학교 女校長 80여명이 참가, 국민윤리와 청소년의 가치관형성에대한 강연을 듣고 순결·신의·정직·성실등 正統的인 女性德目에대한 분과별 토의를 가졌다. 이중 청소년의 性倫理를 다룬 「순결」分科는 女校長들의 가장 큰 관심을 모았으며 性敎育의 현실과 문젯점에대한 一線교육자로서의 의견을 주고받았다. 文教部가 곧 내놓을 「청소년성교육지침서」발간을앞두고 이 세미나에 참가했던 4명의 女校長을 초청, 性教育의 바람직한 방향을 타진해본다.

○○○○○○○○

◇참 석 자
▲崔 玉 麗 (獎忠女中교장)
▲鄭 喜 卿 (梨花女高교장)
▲洪 昭 子 (惠園女高교장)
▲鄭 玧 淳 (昌德女中교장)
●進行·記錄=張 明 秀기자

▲鄭喜卿=이번 여성교육세미나에서 性教育을 다룬것은 국민윤리、청소년의 가치관、女性德目의 정립성들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과정에서 그 한부분으로 논의가 된것이지요. 사실 성교육이란 이처럼 광범위한 다른 모든교육과 連繫를 갖는 것이지 독립된 과목으로 따로 떼내어 생각할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 性에대한 意識은 한나라의文化속에서 형성되는것이기때문에 무조건 다른나라의 성교육을 본받을수도 없는 것이지요. 北歐에선 국민학교 1학년때부터 우리가 깜짝 놀랄 수준의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나라들은 근본적으로 프리·섹스에 대해 너그러운 편이지요. 지난번 「교사사건」의 쇼크로 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소리가 사방에서 높아지고 있는데, 비단성교육뿐 아니라 청소년교육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사건은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의 맹점, 教師양성과정의 허술함, 社會의 기강해이등 여러가지 時代的인 휘청거림속에서 빚어진 일이지 성교육의 잘못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수는 없어요.

▲洪昭子=동감이에요. 성교육은 바른人生觀·倫理觀·異性觀등을 길러주는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지요. 흔히 성교육이라면 性에대한 지식, 또는 피임에대한 지식만을 가르치는것으로 생각하여 위험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性에대한 지식은 本能的으로 자연히 알게되는것 아닙니까. 성교육은 性의 바른意味를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것은 人生의 意味를 떠나서는 가르칠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지요.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좀 지나친 例가 될지 모르겠으나 美國에 이민가서 살고있는 한부인이 들려준 얘기를 소개하고 싶군요. 그부인은 9살, 11살짜리 아들을 두고있는데 그아이들이 공원에 놀러갔다가 한男女가 성관계를 갖는것을 보게되었대요.

그아이들은 쇼크를 받고 집으로 돌아와 『엄마 아빠도 그런일을 해서 우리를 낳았느냐?』고 묻더래요. 미국의 국민학교에선 그또래들에게 이미 임신에 대해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렇게 묻는게 당연하지요. 엄마는 당황했지만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을수 없었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은『엄마가 싫어졌다. 다시는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않겠다』고 제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아버리더래요. 엄마는『어린것들이 망측한걸 보고 다니며 별것을 다묻는다』고「한국식 호통」이 나오려는걸 겨우 참고서 사람과 性과 分別에대한 설명을 차근차근 해준후 아이들 스스로 책에서 그런 내용을 찾아읽도록 했다고해요.

사람이 밥을 먹는것은 자연스럽고 꼭 필요한 일이지만 남의것을 훔쳐먹거나, 장소를 가리지않고 먹거나, 지저분하게 먹게되면 그것이 추하고 떳떳치 못한일이 된다는걸 예로 들면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었대요. 아이들은 자기들 나름으로고민을하며 도서실에 가서 며칠동안 책을 찾아 읽더니 『엄마아빠를 다시 사랑하기로 했다』고선언하더래요 (웃음). 이 얘기를 듣고 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또 어머니로서 많은것을 느꼈지요.

▲崔玉麗=우리나라의 교사나 부모가 미국의 경우처럼 솔직해질수 있겠느냐, 또 그 솔직함이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 질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지만, 그 어머니의 현명함에서 많은것을 배울수 있겠군요. 우리는 性문제를 생각할때 지나치게 他人의 눈을 의식하고 또 他人을 의식하도록 가르치고 있지요. 학생에게 어떤 性문제가 생겼을때 교사나 父母가 꼭 묻게되는것이 『남들도 알고있니?』란 질문이에요.

교사의 입장에서 소문만 나지않은 일이라면 처벌을 면해주고싶은 마음이 드는것도 솔직한 심정이구요. 어른들의 이러한 태도가 은연중에 청소년들에게「性은 비밀스러운것」「남들만 모르면 괜찮은것」이라는 생각을 쏠게하는것이 아닐까요. 왜 순결을 지켜야한다는것을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하고『남들이 알면 큰일나니까 순결은 꼭 지켜야한다』는식으로 주입을 시킨다면 그 교육의 효과는 매우 의심스럽지요. 성교육은 정직·신의·사랑·분별등 다른 德目들을 바탕으로, 또 그 덕목들과 위배되지않게 가르쳐나가야만 확고한 人生觀의 一部가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鄭玧淳=「朱교사사건」으로 성교육의 필요성이 새삼스럽게 강조되고있지만 지금까지 성교육을 안해온것이 아닙니다. 家政、生物、國民倫理、교련등 여러과목에서 각기 성교육을 다루고 있지요.

앞으로도 성교육이 독립된 과목이 될수는없다고보며 성교육을 강화해야한다면 그동안 성교육을 다루어온 각과목의 교사들이 모여 서로 중복되지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강화해나갈것인가를 의논하는게 좋을것같습니다. 다른 모든 교육이 다 그렇지만 특히 오늘날의 성교육은 性에대해 너무 모르는 학생과 너무 많이 알거나 잘못 인도되어진 학생을 함께 가르쳐야 한다는것이 큰 어려움입니다. 요즘에는 주간지뿐 아니라 여성잡지나 학생잡지까지도 경쟁적으로 性문제를 다루고있기때문에 性에 관심이있는 학생들은 어른보다 더많은 性知識을 가질수가 있어요. 그런가하면 골목길에서 불량배에게 강제키스를 당한후 想像임신이되어 1년내고민을 했을만큼 임신의 원리조차 모르는무지한 학생도 있지요. 흔히 성교육이라면「여자의 순결」에만 치중하여『남자는 다 이리떼 같으니 조심하라』고 가르치기쉬운데, 성교육은 당연히 남학생、여학생에게 같은비중을 두어야합니다.

性에 대해「被害者와 加害者의 관계」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남녀학생 모두를 바르게 지도 해야지요.

▲崔玉麗=성교육의 대상을 낮춰잡아야 한다는 것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군요.「교육일선」에서 볼때 고등학생 보다 중학생이 더 위험한 시기에 있다는 걸 느낍니다. 이시기에는 호기심이 왕성한 반면 분별력과 자제심은 덜 발달되어있으니까요. 사회나 가정이나 학교에서 그동안 중학생들이 얼마나 성숙했다는것을 모르고있었다고 할까요. 요즘 중학생은 옛날 중학생 처럼「어린아이들」이 아니란것을 부모들은 잊지마셔야겠읍니다. 이시기의 性에대한 호기심을 억누르거나 무시하지말고 性의 의미를 일찍부터 바르게 일깨워줌으로써 불필요한 방황이나 탈선을 막아야지요. 또한「순결을 지켜야한다」는것이 성교육의 대전제이지만, 만일 事故로 순결을 잃었을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한다는것까지 은연중에 가르쳐야하는 것이 오늘날성교육의 과제입니다.

◇洪昭子교장 ◇崔玉麗교장 ◇鄭玧淳교장 ◇鄭喜卿교장

▲鄭玧淳=여학생들이 아버지、오빠、남자교사등을 통해서 異性에대한 눈을 키워가는것은 자연스런 일이며 또 건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멋진 男子教師에게 한때 연정을 품는 여학생이 있다해서 그를 불량학생이라고 꾸짖을 수는 없는일이지요. 그것은 감수성많은 나이에 겪을수있는 하나의 아픔이기도 하며、학교와 가정에서 평소에 교육을 제대로시켰다면 그 아픔은 아무런 문제없이 아물수 있는것입니다. 異性에대한 사랑은 아름답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지만, 도덕성과 윤리선을 지니지 못한 사람은 추한것이며 또 불행을 불러오게 된다는것을 납득시킨다면 사춘기를 문제없이 넘길수 있겠지요.

▲鄭喜卿=청소년교육의 어제와 오늘을 생각해볼때『학교교육이 청소년들에게 지고 말았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읍니다. 문제에 대비하는 교육을 하지 못한 채 문제가 터진 후 그것을 뒤쫓기에 급급했던것을 부인하기 힘들어요. 실은 10년전에 이미 청소년들의 남녀교제를 양성화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많은 청소년들이 異性친구를 갖고 있는것이 현실인데도 학생들이 이성교제를 안한다는 전제아래 교육을 해왔고, 많은 학생들이 私服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는데도 학생은 항상 校服을 입고 있다는 전제아래 교육을 해온게 사실이지요. 크게 변모하고있는 청소년사회를 외면한 채 현실과 거리가 있는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일이 터질 때마다 뒷머리를 한대 얻어맞은듯한 낭패감을 가진 수밖에 없었어요. 성교육 역시 학생들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한 후 그것을 토대로 실시해야만「뒤를 쫓는 교육」을 면할 수 있다고 봐요. 어떤 경우에도「막연한 육감」만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학교나 가정에서 학생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지요.

▲洪昭子=학생들이 性에대한 관심이 높으면서도 성교육에는 별로 흥미를 보이지않는것은 성교육의 결론이 무엇이라는것을 그들이 먼저 알고있기때문이지요. 歐美에서는 性에대한 전반적인교육을 통해서『왜 순결을 지켜야 하는가』를 合理的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부터『순결을 지켜야 한다』는것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性教育시간에는 아무도 질문하거나 상담해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요. 우리나라의 교육이 좋은점도 많지만 幼兒期에는 自由放任으로 키우다가 분별력이생기는 청소년기로 가면서 점점 규제를 강화하는것은 한번생각해볼필요가 있다고봐요. 이에비해 西歐에선 幼兒期에 子女를 엄하게 키우는 대신 청소년기로 갈수록 개인의생각과 自由를 존중해주고있지요. 성교육역시 규제로 억압하려하지말고, 자신의 人生을 자랑스럽게 설계하려면 청소년으로서 어떻게 性과사랑을 받아들일것인가를 스스로 자각할수있도록 가르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人間은 소중한 존재」라는것을 일깨워주는데 성공한다면 性의 문제도 자연히「소중한 一部」로서 받아들여질것이니까요.

品質관리운동 陣頭지휘

◇불황의 돌파구를 품질관리운동에서 찾아라。품질경쟁력을높이지 않고서는 수출도 어렵고 우량공산품을 생산할수 없다고 판단한 金炯培공진청장은 中小企業의 품질관리운동을 진두 지휘하기 시작했다。5일 電線工協에 들러 34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품질관리교육을 실시한 金청장은 오는24일까지 11개中小企業조합을 차례로 순방, 중소기업체에대한 품질관리확산을 촉구할 계획이다。<電線工協에서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金청장>

美·日女性「生活만족도」정반대

—日食品회사 兩國의 意識·行動조사

海外女性

美86%가「滿足」 日은73%가「不滿」

「自由時間」부족 同時호소

美「가정平和」 日「人間관계」중요시

자신의 현재 생활에대해 美國여성들은 86%가 만족하는 반면 日本여성들은 73%가 불만을 느끼고있다는 한 조사보고서가 발표되었다.

日本의 한식품회사는 최근 美·日두나라 여성들을 대상으로 의식과 행동을 조사했는데 조사대상은 15세이상의 美國여성 1천명과 日本여성 3천명.

조사결과 직업 有無는 생활의 만족도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며 未婚者 여성들은 기혼여성보다 불만이 더 많았다.

조사자들은 『미국은 신앙이라는 정신적 뒷받침이 있어 만족도를 높여주는반면 일본은 평온한 가운데 무엇인가 불안을 느끼게되어 불만이 많은것같다』고 분석하고있다.

자기자신의 장점으로 美國여성들은 ①불굴의 정신 ②정직 ③知性 ④신뢰감⑤신앙을 들고있고 日本여성은 ①명랑·쾌활 ②뛰어난 思考 ③낙천적인 성격 ④강한 인내심⑤친절등을 들고있다.

또 노력등 13가지 단어를 놓고 좋아하는 순서를 물은결과 美國여성은 知性·平和·自由·협조·開放·화려함·다양성등의 순서를보였으나 日本여성은 노력·지성·자유·행동적·미래·평화·협조의 순이다.

생활중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점은 두나라 여성이 모두『自由時間』과『자기자신의 삶의 가치』라고 지적했으나 그순서에 있어서 美國여성은『자유시간』은 더중시하고 일본여성은『삶의 가치』를 더중시하고 있다.

시간이 있을때 하고싶은 일로는 美國여성은 쇼핑·스포츠구경·공상을 즐기고 싶다는것 등이며 日本여성은 가벼운여행·독서·스포츠구경등의 순이다.

친구들을 만났을때의 화제는 美國여성의경우 직업과 물건·사회적사건·취미나 잡담·자녀문제·政治등의 순이고 日本여성은 취미와 잡담·자녀문제·음식이야기·직업이나 물건·사회적사건등이다.

美國은 社會와 관련된것이 좀더 앞서고있다.

교 회 안 내.

교 회 명	담임목사	예 배 시 간	주 소	전 화
가나안교회	이 정 준	주일오후 1 : 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3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 병 한	주일오전 7 : 30 오후 2 : 00 영어설교 오후1 : 30 금요저녁 9 : 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고신장로교회	조 성 관	오후예배 1 : 00 성경공부 2 : 30	148 Thornridge Dr. Thornhill	241－4546
대 한 교 회	강 근 환	주일오후 1 : 30	3819 Bloor St. W.	741－5411
순복음교회	이 필 주	주일오후 2 : 00 금요기도 8 : 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동부한인장로	홍 순 관	대예배 오전11시 영어예배12 : 30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 주 성	주일새벽 6 : 30 주일 낮 12 : 00 주일오후 2 : 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 희 선	주일낮 11시 주일찬양예배7시 수요예배 8시 주일새벽기도 6시	135 Briscoe St.E.	63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 용 규	주일대예배11 : 00 주일저녁예배7 : 30 금요기도 밤10시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 도 교 회	김 용 진 정 춘 수	주일오후 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 석 교 회	양 세 주	주일오후 1 : 30 성경공부 2 : 40 토요기도 밤7시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 엘 교 회	최 상 봉	수요저녁 7 : 00 주일오후 1 : 00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 경 진	주일오후 1 : 30 금요오후 7 : 00	7 Gretna Ave.(Victoria Pk.&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 승 환	주일오후 2시 중고등영어 오후1시 수요새벽5 : 30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새한장로교회	김 상 호	주일오후 2 : 00 토요오전 7 : 00	105 Wilson Ave.	482－4577 633－3132
서머나감리교회	박 준 하 김 옥 희	주일오후 2 : 00 수요예배 7 : 30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Ont.	751－3611 752－9860
대한수도원	조 권 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토요집회 오후2시 평일기도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Tor.	698－5363
베다니성결교회	김 요 환	주일오후 1시 성경공부 주일 오후3시	2799 Weston Rd.	248－9709 248－1653
성 산 교 회	계 화 삼	주일오후 1 : 30 4 : 00 수요오후 7 : 30	65 Mayall Ave. Downsview	977－5202

교 회 명	담임목사	예 배 시 간	주 소	전 화
순복음카나다	조 이 식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 태 진	주일오후 2 : 00 금요일 오후6시 성경공부	1272 Weston Rd.	242－4964 665－2866
영 락 교 회	김 재 광	주일오후 1 : 30 수요저녁 7 : 30 금요저녁10 : 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9880 423－8400 (복음다이알)
오순절장로교회	장 세 택	주일오전11 : 00 금요오후 8 : 00 주일오후 4 : 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조 창 환	수요저녁 7 : 30 일요오후 2 : 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 감리교회	여 용 순	주일오후 1 : 30 금요예배 7 : 30	2385 Warden Ave.	444－3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 용 출	주일오후 1 : 30 금요오후 7 : 30	963 Pharmacy Ave.	755－9766 755－1528
제 7 일안식일	박 형 종	금요오후 7 : 30 토요오전 9 : 30 11 : 00	255 Finch Ave. W.	630－4284
중앙장로교회	정 관 일	주일오후 1 : 00 성경공부 2 : 20 금요오후 9 : 00	502 Bathurst	274－5305 전화설교
천 주 교 회	고 종 옥	주일오후 1 : 00 토요오후 5 : 30	83 Power St.Tor.	863－0415
침 례 교 회	홍 신 용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 현 교 회	박 경 남	주일오후 2 : 00 주일오후 4 : 30 금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245－1687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 1 : 30	54 Queen St. 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 상 대	주일오후 1 : 00 (영 어 예 배) 주일오후 2 : 00 (대 예 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 희 민	주일오전11 : 00, 수요오후 7 : 30 T. V. 예배 8 : 30~9 : 00A. M. CH. 79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 낙 중	성경공부 2 : 30 예 배 3 : 00 주일학교 3 : 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선 교 교 회		주일오후 1 : 00	1 Greenland Rd.	444－8002

"여호아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편23편)

아세아 한약방
특수 ... 불리치료, 부인병
시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530 0522(B)
531 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렡
619 Bloor St. W.
☎ 535-3520, 630-8491

구 인

건강, 사업, 결혼, 애정문제에 걱정이 있으신 분은 지금곧 "마리수"를 찾으세요.
많은 도움이 되어 드릴것입니다.
☎ : 463-9138

FLOOR LADY 또는 MAN구함(수퍼바이저)
스포츠옷 공장에서 일을 보실 능력있는 분
위치 : 퀸×더프린
신청 : 42 GLADSTONE AVE.
전화 : 537-0400
신청시간 : P. M. 5 : 00~7 : 00

경험있는 바느질및 재봉사구함
나일론스포츠옷감임
신청 : 42 GLADSTONE AVE. (퀸×더프린)

경험있는 남자 헬퍼구함.
(Full 타임)
☎597-1115(Mr. 박)

토요일, 일요일에 일하실 여자분
캐쉬어 구함(12시부터 오후8시까지 근무)
다운타운지역 ☎921-0624 Mr. 한

주방일 도우실분 구함.
☎532-2727

번역, 통역 :
각종서류 번역및 법정통역, 정부기안 통역해드림
☎ : 281-1677 이 영 화(전대학강사)

매매및 양도

"꿀"팝니다(토종꿀과 로얄젤리)
30 DEWSON ST.(오싱톤×칼리지)
반드시 영어로 문의하실것 ☎ : 534-0563

집안사정으로 급히 버라이어티가게 팝니다.
렌트 $ 570(월) 리스 5년 + 5년
주매상 $ 5.200 ☎298-7635(Mr. 정)

자동차 급매, 75년형 로얄 모나코 A-1 콘디숀.
3~4년은 아무 이상없이 탈 수있음. 가격 $ 950
☎ 530-1491

전망이 밝은 70여개의 가게가 들어선 새로지은 몰 안에 Take-out food Business.
☎ : 299-1713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 8,000, 머신 $ 800, 렌트 $ 550 살림집 포함
☎ : 1-387-3983 권리금 $ 10,000

그로서리 가게 팝니다 :
주매상 $ 7,000, 렌트 $ 700(월), (2 베드룸 아파트포함) 포함), 리스 5년+5년 옵션, 아스킹 $ 70,000+스탁.
☎ : 769-5956

하이웨이 24, 89, 10(SHELBURND)에 버라이어티 스토아 붙은 가스 스테이션, 코너위치, 년매상 100만달러, 총수익 10만달러, 순수익 6만달러, 권리금 6만달러+스탁, 곧 몬트리얼 은행이 개점하므로 더욱 매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좋은위치임 ☎ : (519) 925-5210
MRS. 윤, 오후3시 이후연락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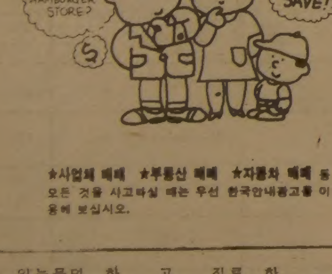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스낵·바, 드라이 크리닝을 겸해 할수있는 상점, 살림집 포함.(베더스트×로렌스)
오전10시~오후8시 ☎ : 783-0134

COMMERCIAL BUILDING과 COIN LAUNDRY
편안하고 안전한 비지네스
사정상 급매코저함.
(블루어 × 오싱톤)
☎ : 532-7094(낮), 241-8058(밤)9시30분까지

하우스 렌트

교통 편리한곳에 2베드룸(2, 3층)세놓음.
집주인 좋음 월 $ 420
☎ : 532-9139 (Mr. 로드리고)

5 일에 $ 13 로
원하시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읍니다.



★사업체 매매 ★부동산 매매 ★자동차 매매 등 모든 것을 사고파실 때는 우선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십시오.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 751-9236, 757-2106 홍진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판 현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 : (B) 752-3111, (R) 298-2546

D. F. McALLISTER R. E. LTD.
투자 전문(IC & 1)
(B)497-0600, (R)298-8558 김시성

미 용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스 미용실
B)532-7094 R)248-2437(코리아하우스 뒤)

보 석

다이아몬드·스타=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Mr. LEE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 : 534-1085 김 춘 탁 619 BLOOR ST. W.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VIDEO 촬영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60 MINUTE PHOTO LAB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KNOB HILL FARM DIXIE MALL ☎ : 274-4328
50 BLOOR ST. W. ☎ : 967-7121

시설및 수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보수·가게신설·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김부원
☎ : (B)245-5544(PAGING)2790, (R)255-2161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목공소 FineWoodwork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69-9468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싸우나 설치, 진열장 찬장등 가구제작

악 기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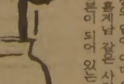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용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이사 하셨읍니까?
●주소변경을잊지 마십시오?



양 장 점

셀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에어콘·히팅·냉장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인벤토리

INVENTORY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 : 255 2111(B), 828 5001(R) 전기덕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ROGERS GARAGE 변 달 원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 : 651-9324(B)226-5430(R)

꽃 집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 751-5851(B), 757-6711(R) 이동환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 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 B)769-0609 R)242-5194(여정용)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8719(R) 허소피아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86 넘파·김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태 권 도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
1963 WESTON RD.(1층)
☎ : 247-7577(웨스톤×로렌스)로브로 앞

운전학교

오 행 근 운 전 학 교
423-3035

한 방 원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퐁웅담 ●녹용 ●우황청심환 ●사향 ●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 (B)536-6854 (R)743-0752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뜸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동 양 한 약 상 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 병 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거의다가 서임)
VISA 또는 MASTER CHARGE는 CASH이상 환영.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 : 960-5736(B), 844-0178(R)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3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 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이 영 철
●INCOME TAX PREPARATION ☎ 239-6802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 : 273-7300 MISSISS.

이 경 복 회계사무소
INCOME TAX & BOOKKEEPING ☎ : 766-5639
COMPUTER SYSTEM3416 Dundas st. W. Suit206

기 타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전문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함.
☎ : 537-0432(미스타. 리)

ZAP SUREKILLER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O' Kim Embroidery
각종 꽃수, 명찰,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 633-9341

광 고 접 수
533~2361

流星의 賊

< 302 >

李炳注 作
李友範 畵

風雅와 策謀 ⑱

그날 밤 히데쓰구는 그의 측근인 기무라와 같이 한 자리에서

『아무래도 그홍계남이란 조선인이 욕심이 나는구먼. 저런 사람을 가지기만 하면 얍부님(수길)에게 대한 자랑거리가 될텐데 』

하고 몇번이나 입을 다셨다. 기무라더러 좋은 꾀를 내 보라는 것이다.

히데쓰구는 사사건건 수길의 비위만을 거슬러 실총이 불안했다. 그런 까닭에 홍계남 같은 걸사(傑士)를 자기의 막하에 둠으로써 수길로 하여금

『그놈 인재를 알아볼 줄 알게 되었으니 제법이로군』

하는 칭찬을 하게끔 하고 싶었던 터였다.

히데쓰구가 기무라에게 물었다.

『일본에 홍계남을 당할만한 궁수(弓手)가 있을까』

『옛날의 나스요이찌(那須與一) 같은 사람이 있었다지만 오늘엔 아마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데지. 말을 그처럼 잘 타는 사람은?』

『말을 다기만하는 기량이면 더러 있지 않겠소이까』

『말을 타고 발휘하는 솜씨가 대단하지 않던가. 그만한 사람이 있겠는가 말이다』

『아마 없을것으로 압니다』

『얍부님도 홍계남만 한 기량이면 놀라시겠지?』

『물론입니다』

『어떻게 하는 수가 없을까. 그런 사람 하나를 우리편으로 한다는건 만명의 적을 무너뜨린 것만 한 보람이 있을텐데 말이다』

『세상의 일이 어디 욕심대로 될 수가 있습니까. 더우기 홍계남 같은 사람은 기량도 기량이려니와 인간의 근본이 되어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호락호락 잔꾀에 넘어 가겠읍니까』

『그러니까 더욱 욕심이 난다는 말 아닌가』

『그런 꾀를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얍부님이 돌아오시거든 한번 의논을 해보십시오. 홍계남 같은 걸사를 포용하고 싶은데 우리의 힘으론 어찌할 수가 없읍니다. 아버지께서 수를 써보시라구요. 그렇게 하면 얍부님께서 퍽 좋아하실 겁니다. 상(上)께서 인재를 알아보게 되었다는 인식을 가지시는 동시에 그런 의논을 해올만큼 되었으니 믿을만하다고도 여기지 않겠읍니까』

『그것 좋은 생각이다』

하고 히데쓰구는 기뻐했다.

한편 사신들 사이에도 홍계남의 기량이 커다란 화제로 되어 있었다. 누구보다도 제남을 잘 알고 있는 황진마저도

『홍공이 그처럼한 신기(神技)의 소유자인줄은 미처 몰랐다』

고 극구 찬양했고, 허성과 차천락은

『우리 가까이에 영웅을 두고도 알지못했으니 될 애기나 했던가』

하고 한숨 지었다.

무예(武藝)를 숭상해야 할 것인데도 천시하고 있던 조정의 중신들이었기 때문에 홍계남과 같은 출중한 무예자의 면목을 멀리 타국에 와서 발견한 셈으로 되는 것이니 허성과 차천락의 반성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면 일국일성(一國一城)의 주인이 될 수있는 기량이 조선에선 기껏 당하군관(堂下軍官)의 대접이상은 되지 않는 상황, 그것이 바로 그때의 풍조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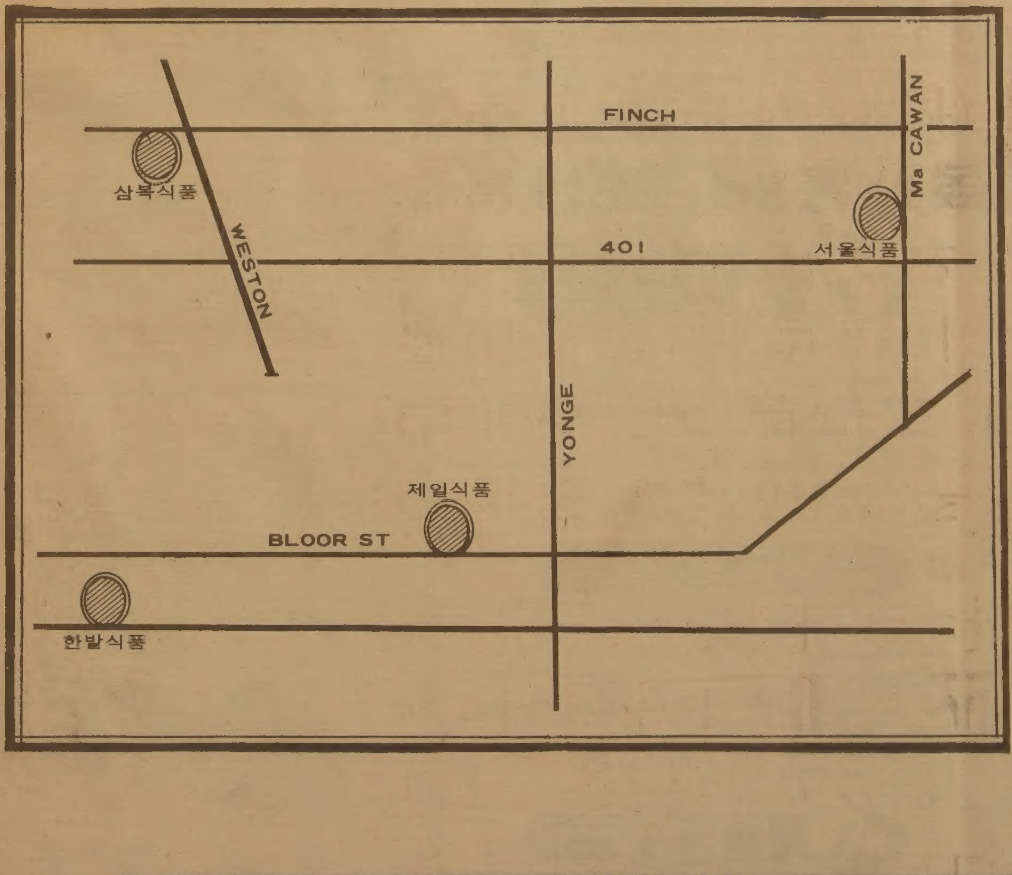
중 앙
AUTO SERVICE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 : 532-3946 김창세

미국서 새로 수입한

가주미(일명 **장미쌀**)를 아십니까?
한번만 잡수어 보세요.
정말 **좋은쌀**입니다
값은 얼마냐고요? 묻지 마세요.
캐나다에서 **제일싼값**으로
여러분께 봉사 합니다.

※이쌀은 Comet가주특산미와도 다르고
Calusa장미쌀과도 다르며 Pan Asia
장미쌀과도 밥맛이 다른 쌀이지요.
어디서 파느냐고요?
**한밭식품 · 서울식품 · 삼복식품 · 제일
식품**에서만 판매합니다.

가주미(일명 장미쌀) $18.94



한밭식품 274—5401	삼복식품 743—8270
서울식품 291—8317	제일식품 532—1054